

인천민주로드 길잡이
양 성 과 정

자 료 집

- ☐ 일시 : 2022년 5월 27일~6월 28일 오후 2시~5시
- ☐ 장소 : 인천민주화운동센터

인천민주로드 길잡이 양성과정

일 시 : 2022년 5월 27일(금)~6월 28일(화)

장 소 : 인천민주화운동센터 3층 교육실

- 인 원 : 총 20명 내외 (인천민주화운동에 관심이 있고 길잡이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인천시민)
- 이수시간 : 3시간 등*9회 총 30시간 (답사계획 및 시연포함, 90% 이수하여야 이수증 발급)
- 접수방법 : 센터 홈페이지에서 신청서 다운받아 5월 20일까지 idph@daum.net로 전송

	일자	주제	강사	비고
1	5월 27일(금)	인천민주화운동사 개괄	이우재	사)인천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
	14:00~17:00(3시간)			
2	6월 3일(금)	주안권 안내 및 답사 (민주주의길)	이우재	사)인천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
	14:00~17:00(3시간)			
3	6월 7일(화)	중동구권 민주로드 안내 (노동자의 길/독립만세길)	장희숙	인천도시자원디자인연구소
	14:00~17:00(3시간)			
4	6월 10일(금)	중동구권 민주로드 답사	장희숙	인천도시자원디자인연구소
	10:00~14:00(4시간)			
5	6월 14일(화)	부평권 안내 (평화의 길)	이형진	민주노총 일반노조
	14:00~17:00(3시간)			
6	6월 17일(금)	부평권 민주로드 답사	이형진	민주노총 일반노조
	10:00~14:00(4시간)			
7	6월 21일(화)	강화권 안내 (노동의 길)	김경희	인천바로알기총주단
	14:00~17:00(3시간)			
8	6월 24일(금)	서울 경기권 안내 모란공원묘지/세월호기억저장소	이형진	민주노총 일반노조
	14:00~17:00(3시간)			
9	6월 28일(화)	시연 및 마무리	담당자	인천민주화운동센터
	14:00~18:00(4시간)			
총 9일 30시간				

차 례

인천민주로드 길잡이 양성과정

◆ 인천민주화운동사 개괄 -----

이우재 (사)인천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 이사장

◆ 주안권 민주로드 안내 -----

이우재 (사)인천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 이사장

◆ 중동구권 민주로드 안내 -----

장희숙 도시자원디자인연구소 공동대표

◆ 부평권 민주로드 안내 -----

이형진 민주노총 인천지역 일반노조 위원장

◆ 강화권 민주로드 안내 -----

김경희 세계문화유산해설사/문화관광해설사

◆ 서울경기권 민주로드 안내 -----

이형진 민주노총 인천지역 일반노조 위원장

인천민주화운동사 개괄

이우재 (사)인천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 이사장



목차

- ① 유신체제의 성립과 박정희 사망
- ② 6월 항쟁
- ③ 노태우 정권 하의 민주화운동

1. 유신체제의 성립과 박정희 사망

“

저항의 일상화
민주화 운동의 시작
지식인, 학생들, 민중과의 결합
혁명을 모색하다

유신 이전의 박정희 정권 반대 투쟁

한일회담 반대투쟁

- 1964년 3월 27일
- 인천시 중고등학생 약 9500여명
- "대일굴욕외교반대"를 외치며 한일회담 반대 시위를 함
- 1965년 6월 22일
- 인하공과대학 학생 약 800여명
- 학내에서 한일회담 반대성토대회 개최
- 가두시위를 벌여 숭의동 사거리 부근에서 경찰과 투석전

3선개헌 반대투쟁

- 1969년 박정희가 3선 연임을 가능하게 개헌을 추진
- 1969년 7월 5일, 9월 11일
- 인하공대학생
- 3선개헌 반대 성토대회를 개최

“ 야당, 지식인, 학생이 중심

주어진 문제에 대한 일시적 투쟁
따라서 연속성을 갖지 못하고
제기된 문제가 사라지면 소멸

유신체제의 성립

- 1972년 10월 17일
- 전국 비상계엄 선포, 국회 해산, 정당 및 정치 활동 중지
- ☞ 헌법을 무시한 군사 쿠데타
- 1972년 11월 21일 국민투표에 의해 유신헌법이 통과

유신헌법의 주요 내용

- 통일주체국민회의에 의한 대통령 선출
- ▶ 간선제
- 대통령 연임 제한 조항의 폐지
- ▶ 종신집권
- 국회의원 1/3과 법관을 대통령이 임명함
- ▶ 대통령 1인 독재국가
- 필요시 일부 헌법 조항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는 긴급조치 발동권

“ 민주주의의 종식
박정희 1인 종신집권 체제의 성립

유신체제의 성립

유신체제에 대한 저항과 민주화 운동의 성립

1973년 10월 2일	1973년 12월	1974년 1월	1974년 4월
서울대 문리대 학생들 유신헌법 철폐 시위 이후 전국의 대학생으로 유신반대 시위가 확산	장준하, 백기완 주도 개헌청원 백만인서명운동	긴급조치 1호 선포 유신헌법에 대한 모든 반대, 비방 금지 이를 위반할 시 영장없이 체포, 구속 비상군법회의에서 15년 이하의 징역	민청학련 사건 203명이 비상군법회의에서 사형, 무기징역 등 선고 긴급조치 4호

유신체제에 대한 저항과 민주화 운동의 성립

1974년 11월 6일
인하대 학생 1000여명

대강당에 모여
"유신철폐", "구속학생 석방"을
요구하며 집회

이날의 집회는
기독교학생회, 샘동인회 등
학내 서클이 중심이 됨

1974년 8월 26일
1974년 10월 20일

답동성당에서
인천교구 천주교 신자들이
시위와 기도회를 가짐

이는 가톨릭이 민주화운동에
적극적으로 나서게 된 계기

답동성당과 가톨릭회관은
인천민주화운동의 상징이 됨

1974년 11월 20일
인천교구 사제단과 신자
1200여명

답동성당에서
지학순주교의 석방과
인권회복을 위한 기도회

1975년 5월 13일 긴급조치 9호 선포

憲法비방·改廢선전 禁止



- 최후의 긴급조치이자 완결판
- 긴급조치 1호와 비슷하나
비상군법회의가 아닌 일반법원에서 사건 심리
- 형량을 1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조정했지만
이는 완화가 아닌 사실상의 일상 조치
- 긴급조치 9호 위반으로 구속된 학생은
석방 후에도 학교 복학이 금지
- 학생회 해산
- 전국의 고등·대학교에 학도호국단을 결성
- 학도호국단의 간부는 교장이나 총장이 임명
- 대학 내에 경찰과 정보기관원들이 상주

1975년 5월 13일 긴급조치 9호 선포

- 1978년부터 대학생들의 반유신 시위가 더욱 활성화됨
- 1978년 12월 10일 앰네스티 인천 지부 설립
- 황상근 신부가 지부장을 맡았으나
실제 운영은 민주화운동에 관심이 많은 지역 청년들이 중심이 됨
- 앰네스티 인천 지부는 1980년 5월 해산될 때까지 인천 민주화운동의 구심이었음

- 1978년 사회과학 독서모임 '기러기'와 '사우', '통학생회'가 창립됨
- 이들을 흔히 지티(지역팀)라고 칭했음
- 이후 인하대와 함께 80년대 인천 학생운동의 중심이 됨

▶ 인천민주화운동권이 형성됨



“

1979년 10월 26일
박정희 피살

유신 독재의 종식

민주노조운동의 시작

1970년 11월 13일

서울 동대문 평화시장에서 전태일이 근로기준법 준수를 요구하며 분신 자살

- ▶ 지식인, 학생이 노동 문제에 관심을 갖게 되는 계기
- 민주화를 단지 형식적인 민주화가 아니라
- 민중의 인간다운 삶이 보장되는 사회를 건설하는 것으로 인식하는 계기
- 학생 운동가 중 일부 선진적인 인사들이 노동 운동을 위해 노동 현장에 투신하기 시작

“ 민중이 주인이 되는 사회를 모색

인천의 민주노조운동의 시작

1961년 인천 도시산업교회의 설립

1968년 강화도 심도직물 사건

1972년 동일방직에서 국내 최초로 여성이 노조지부장에 선출

1973년 12월 부평4공단 삼원섬유에서 외국계 회사 최초 노조 결성

1974년 4월 반도상사 노조 결성

- ▶ 민주노조운동
- 정부의 경제개발계획으로 인천이 국내 우수 공업지대로 변신
- 그리하여 인천이 점차 민주노조운동의 성지가 됨

동일방직



1976년 ~ 1978년
인천 만석동의 동일방직 여성 노동자들
"나체시위" 사건
"동일방직 똥물 투척 사건"
동일방직 여성노동자 124명 해고
부활절 연합예배 시위 사건

- 민주노조운동에 대한 자본과 정권의 야만적인 탄압 대표 사례
- 노동자와 학생의 연대가 형성

2. 6월 항쟁

“

학생에서 노동자로
노동자, 농민 중심의
민중민주주의 혁명을 꿈꾸다
급진화, 과격화

1980년 5.18 광주민주화운동과 인천

5월 18일 0시 전두환 일당이 전국에 비상계엄을 확대
전국 각 대학에 휴교령을 내림과 동시에 군대 투입

그 시각 인천,
5월 22일부터 30일까지 송도고등학교 출신 이교정, 이수하 등
광주민주항쟁의 당위성을 주장하며
전두환일당의 처단을 촉구하는 유인물을 부평과 주안 일대에 살포
이들은 6월 동인천 역 앞에서 경찰에 의해 체포, 구속됨

8월10일 "기러기", "사우"의 대학생들
광주민주항쟁을 알리고 전두환일당 타도를 촉구하는 유인을 제작, 살포
이 사건으로 이우재, 조용호, 이정남, 권병기 등 계엄포고령 위반으로 구속



5공화국 출범과 학생들의 외로운 투쟁

“

제5공화국

1980년 10월 27일

대통령 간선제와 임기 7년 단임으로 하는 헌법 공포

1981년 1월 25일 비상계엄 해제

1981년 3월 3일 새 헌법에 따라 전두환 대통령 취임



군복에서 민간복으로 갈아입은 군부독재정권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의 내면화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의 실패 원인을 분석하면서 기존 운동에 대한 반성이 일어남
비조직 시민, 학생만으로는 총칼로 무장한 군부독재를 타도할 수 없음을 확인
군부독재와의 투쟁이 유혈투쟁이 될 수 밖에 없음을 확인
수많은 희생 끝에 얻어질 민주주의의 내용에 대해 고민하기 시작

- ▶ 노동자, 농민 등 민중의 해방이 실현되는
민주 사회를 민중에게 제시해야 한다고 생각함

전두환 군부독재에 저항하는 인천

1981년 5월 18일	1982년 9월 23일	1982년 11월 8일
인하대학교 건물 외벽에 반정부 구호가 발견됨	인천대학교 학생 김성일, 박흥민이 "전두환 군부독재 타도" 구호를 외치며 학내 시 위	인하대학교 학생 이우청, 최진우 학내 시위를 벌이다 구속
수사 중 인하대학교 지하서클 '청진회' 적발 홍문표, 민영수 등 구속	이후 구속	

전두환 군부독재에 저항하는 인천

1983년 10월 5일 인하대학교 이승만 동상 철거 요구하는 유인물 살포됨 다음날 6일 윤호영, 황홍규, 이기선 등이 "파쇼타도" 구호를 외치며 학내 시위를 주도하다 구속 이날 시위에서 학생들이 이승만 동상을 끌어내림	한편, 대학 바깥에선 1981년 5월 21일 인천제일교회 1000여명의 청년들 한완상의 강의를 끝난 후 스크럼을 짜고 "전두환 파쇼 물러가라" 구호를 외치며 축현초등학교까지 가두시위를 벌임 이 사건으로 이민우, 강우경 등 7명 구속
--	---

유화국면과 민주화 운동의 활성화

노동운동의 재건

1983년 10월 태평특수섬유 여성노동자 김용자, 김옥섭 해고 김용자, 김옥섭의 투쟁으로 블랙리스트의 존재가 확인 블랙리스트 철폐 투쟁이 광범하게 확산됨	1984년 4월 17일 대한마이크로에서 노동조합 결성 80년 5.18 이후 인천에서 최초로 건설된 민주노조 이후 민주노조 건설이 활성화됨	1984년 8월 서울대학교 졸업이라는 학력 숨기고 노동 운동을 위해 대우자동차에 위장취업한 송경평이 학력이 발각되어 해고 이후 위장취업이 사회적 쟁점이 됨
--	--	---

유화국면과 민주화 운동의 활성화

1980년 광주민주항쟁이 좌절된 이후 학생들의 처절한 투쟁
1983년 12월까지 민주화운동 관련하여 제적된 학생 수 1,363명
▶ 이는 유신독재 7년동안의 제적생 786명을 훨씬 능가함
그 분포도 유신독재 시절처럼 몇몇 대학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전국의 모든 대학으로 확산됨

이후 전두환 정권이 학생들에 대한 정책을 수정함

1983년 12월 제적된 학생들의 복교 허용, 학원 문제는 학교에 맡기다는 학원자율화 조치 발표
학생회 부활, 전국적인 학생 연대 조직하기 시작함
인하대는 1984년 11월 학생회 구성, 인천대는 1985년 4월 학생회 구성
1985년 4월 경인지역 36개 대학이 모여 경인지구학생연합 결성, 이어 전국학생총연합 출범
이에 영향을 받아 사회 각 부문에서 민주화운동이 활발하게 전개 ▶ 유화국면

유화국면과 민주화 운동의 활성화

인천지역사회운동연합
(이하 인사연)

1984년 11월 19일
인천에 기반을 둔 최초의 본격적인
민주화운동단체

노동운동을 제외한 전 분야를 망라
가톨릭과 개신교, 일반 민주 세력의
결집체로서 조직됨

주축은 인천에 거주하고 있는
학생운동 출신의 청년활동가

한국노동자복지협의회
인천지역협의회(이하 인천노협)

1985년 2월 7일
1970년대 민주노조 출신 운동가들이
블랙리스트 철폐 투쟁 과정에서
고립분산적인 투쟁의 한계를 인식
그것을 극복하기 위하여 조직

인천 노동운동의 중심이었으며
인사연과 함께
인천의 민주화운동을 주도

인천 5.3 민주항쟁과 정치상황

1. 1985년 2월 12일 12대 국회의원 선거 신민당의 돌풍과 개헌정국

김대중과 김영삼을 양축으로 하는 신한민주당(이하 신민당)이
대통령 직선제를 공약으로 내걸고 2.12 총선에서 관제야당 민한당을 누르고
제 1야당으로 부상

대통령직선제 개헌을 놓고 전두환 정권과 대립

인천 5.3민주항쟁과 정치상황

2. 개헌 문제를 둘러싼 민주화 운동 세력의 분열

민통련, 인사연 등은
야당인 신민당과
독자성을 유지한 연대를 주장,

민주헌법을 주장



서노련과 인노련은
신민당을 배격한
독자노선을 주장,

민중민족민주 헌법인 삼민헌법을 주장



인천 5.3 민주항쟁



인천 5.3 민주항쟁



사회변혁운동의 확산

민중민주주의 혁명

학생에서 노동자로, 민중으로



인천 5.3 민주항쟁



1985년 4월 16일~25일

대우자동차 파업

송경평, 홍영표, 이용선 등
학생 출신의 위장취업자
문제에 다시 사회적 주목

인천은 서울과 인접한
공업지대라는 점에서
많은 학생운동가들이
위장취업하여 현장에
잠복해 있었음

1985년 6월 24일~29일
구로동맹 파업

한국전쟁 이후
최초의 동맹파업
정치투쟁적 성격이 강함

심상정 등
학생운동 출신
노동운동가들이 주도

1985년 8월 25일
서울노동운동연합 결성
(이하 서노련)

김문수, 심상정 등
학생운동 출신 노동운동가

70년대 민주노조운동을
조합주의, 경제주의라고
비판
노동자계급의 독자적인
정치 전망에 기초한
정치투쟁을 전개할 것을 주장



인천 5.3 민주항쟁



서노련은 선진적인 노동자들이 노동자 대중을 선도하며
정치투쟁을 이끌어야 한다는 선도투쟁론을 주창

민통련, 민청련 등 민주화운동단체를
노동자의 지도를 받아야 할 소부르주아 운동 단체로 규정, 비판

- ▶ 학생운동 출신 위장취업자들이 대거 몰려 있던 인천도
이에 영향을 받아 인천노협이 인천지역노동자연맹(이하 인노련)으로 개명
서노련과 인노련이 급진적 노동운동을 이끌며 노동자 중심 사회 변혁 주창
- ▶ 민중민주주의혁명



인천 5.3 민주항쟁



1986년 3월 서울대에서 구국학생연맹이 결성

기존의 반독재투쟁 운동노선에서 반미투쟁 운동 노선 주장

학생운동 진영이 반미투쟁을 강조하는 소위 NL진영과
기존의 반독재투쟁과 계급 문제를 중시하는 PD진영으로 양분

NL과 PD로 양분된 진영 문제는 이후 학생운동을 넘어
민주화운동 전반으로 번져나감



인천 5.3 민주항쟁



1986년 4월 28일
"양키 고 홈"을 외치며
전방입소훈련 거부투쟁을
주도하던 서울대생
김세진과 이재호
분신자살

1986년 4월 30일
신민당 총재 이민우가
청와대에서 전두환과 여야영수회담
국회에서 정치 일정에 합의하면
임기 내 개헌 반대하지 않겠다고
전두환과 합의

"소수이겠지만 좌익학생들을
단호히 다스려야 한다"며
학생들 탄압 묵인하겠다는
입장 표명
민주화 운동 진영 내부에
신민당에 대한 분노가 만연



인천 5.3 민주항쟁



1986년 5월 3일 오후 2시
주안 시민회관
신민당 개헌추진위원회
인천경기지부 결성대회 예정됨
결성대회가 예정된 지역 일대
민주화운동세력이 총집결

12시 30분 경
주안 사거리 일대
가두시위
대회 예정 시각 되기도 전에
일대가 시위대로 가득 참
1시 시민회관 앞
민정당 지구당사에서
화염이 솟구침

김영삼, 이민우 등
신민당 지도부는
신민당을 비난하며 가로막는
시위대로 인해 입장 포기
결성대회는 자동으로 무산
하지만 민주화운동 세력
내부에서도 의견 차이로
통일된 행동을 보이지 못하고
각기 다른 장소에서
다른 구호와 주장을 함



인천 5.3 민주항쟁



오후 5시
시위대의 외곽 진출만
봉쇄하던 경찰이
적극적인 진압에 나섬

전두환 정권은 이 사건을
좌경용공세력에 의한
체제전복 기도로
몰고 가면서
민주화운동세력에 대한
대대적인 탄압에 착수

체포된 사람 중
129명이 형법 115조
소요죄로 구속
민통련,
인사연 관계자 등
60여명 지명수배

1980년 5월
5.18광주 민주화 운동이
좌절된 이후
최대 규모의 시위
인천의 민주화운동은
지속 불가능할 정도의
타격을 입음

인천 5.3 민주항쟁이 좌절된 후

- “ 80년대 전반 민주화 운동이 급진화, 과격해진 것은 근본적으로 5.18 민주화운동 진압 과정에서 보여진 전두환 정권의 야만성, 폭력성에서 기인함
- “ 운동가이기 전에 사람이 되라는 품성론이 큰 반향을 일으키면서 큰 목표를 함께하자는 대동단결론이 대세를 형성하기 시작
- “ 선진적인 활동가 위주의 선도투쟁론 대신 국민 대중과 함께하는 투쟁이 강조됨
노동자 대신 국민 대중, 시민이 주목하게 됨
- “ 독자성, 선도투쟁에서 대동단결, 대중과 함께

6월 항쟁

부천 경찰서 성고문 사건

인천 5.3 운동 수배자들을 검거하는 과정에서
부천경찰서 형사 문귀동이 대학생 출신 해고노동자 권인숙을 성고문

인천 5.3 운동으로 많은 활동가들이 구속, 수배되어
인사연, 인노련 등 기존 민주화운동단체의 미비해진 공백을
인천의 종교계와 구속자 가족이 메움

6월 항쟁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1987년 1월 14일
서울대생 박종철
남영동 대공분실에서
고문을 받다가 사망



인천 5.3 운동으로 많은 활동가들이 구속, 수배되어
인사연, 인노련 등 기존 민주화운동단체의 미비해진 공백을
인천의 종교계와 구속자 가족이 메움

6월 항쟁

4.13 호헌조치

1987년 4월 13일

전두환이 이른바 4.13 호헌조치 발표

1987년 5월 18일

김승훈 신부가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이 은폐·조작되었음을 발표

인천 5.3 운동으로 많은 활동가들이 구속, 수배되어
인사연, 인노련 등 기존 민주화운동단체의 미비해진 공백을
인천의 종교계와 구속자 가족이 메움

6월 항쟁

1987년 5월 27일

민주헌법쟁취 국민운동본부(이하 국본) 출범

- 6월 항쟁 기간 전국의 민주화운동을 주도
- 전국에서 국본 지부 결성
- 그러나 인천은 인천5.3운동으로
활동가들이 대거 구속, 수배된 후유증으로 인천 국본은 결성되지 못함
- "장기집권 음모 분쇄를 위한 인천지역공동대책위원회"에서
"호헌분쇄 및 민주개헌을 위한 인천지역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
로 이름을 바꾼 공대위가 그 역할을 대신함

6월 항쟁 과 인천

공대위
5월 17일부터 24일
5.18 민주화운동
계승기간으로 선포

24일
"광주영령 추모 및
민주개헌을 위한
인천지역 시민대회"
부평역 광장에서
개최예정이었으나
경찰이 원천봉쇄함

시민, 학생들
백운역 고가도로에서
시위를 벌이며 대열을 형성
부평시장 로터리
부평1동성당
백마장 입구까지
가두시위 전개

6월 10일 "6.10인천시민대회" 개최
오후 6시 부평역 애국가를 신호로
택시 기사들이 경적을 울려
대회의 시작을 알림

7시 인근 공단의 노동자들이
퇴근하며 합류

오후 9시 3000여명 시위대가
백마장 입구에 집결, 가두시위 전개
이날의 시위로 6월 12일 공대위 공동대표
인사연 집행국장 안영근 비롯한
3명이 구속, 5명 지명수배

6월 항쟁 과 인천

6월 17일 주안 1동 성당
"6.10보고대회"

인하대, 인천대 학생 2000여명
동인천역을 점거, 연좌농성을 벌이다가
보고대회가 예정된 주안1동 성당으로 행진
사제단과 수녀들이 앞장서 시민회관으로 진출
"시민불복종운동"과 "최루탄 발사 규탄"을
결의하고 해산

그러나 수천명의 시민들이 석바위로
행진하며 가두시위를 계속하다
밤 12시가 넘어 경찰에 의해 강제 해산

6월 18일 국본이 "최루탄 추방의 날"로 선포한 것에
발 맞추어 동인천과 부평에서도 시위가 전개됨

오후 6시 동인천역 앞에서 300여명의 시민, 학생이
"호헌철폐 독재타도"를 외치며 시위에 돌입

오후 6시 부평역 앞 광장과 백마장 입구에서
동시에 시위 전개
개선문예식장 앞에 모인 10000여명의 시위대가
11시 40분경 전두환 화형식을 거행함

이후 청천동 시위대와 개선문예식장 앞 시위대가
결합하여 2시에 경찰에 의해 해산

6월 항쟁 과 인천

6월 19일
인하대와 인천대 학생 2000여명

각기 교내에서
"최루탄 추방 인천지역
시민대회 경과보고 대회" 개최 후
교내 시위 전개

6월 24일
동인천역 앞

시민, 학생들이
가두시위 전개

6월 26일
부평역, 백마장 입구
범시민평화대행진이 개최

경찰이 진압하자
시민, 학생 2000여명이
10시 30분에
석바위에 재집결하여
가두시위 전개

6월 항쟁

“ 6월 29일 민정당 대표 노태우가 직선제개헌 수용
시국사범 석방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소위 6.29선언 발표로

6월 항쟁 막을 내림

노동자 대투쟁

“ 1987년 6월 5일
현대엔진의 민주노조 건설로 시작된 노동자들의 투쟁이
6.29 이후 변화된 정세를 맞이하여 울산을 넘어 전국으로 확산

“ 인천
7월 1일 선일연마 노동자들의 파업농성
7월 11일 부평 갈산동 소재 한독금속 노동자들의
민주노조 결성을 계기로 인천 전지역에서 투쟁이 전개됨

▶ 이 투쟁을 발판으로 인천지역노동조합협의회(이하 인노협) 창립

3. 노태우 정권 하의 민주화운동

“
민중, 노동자에서 시민으로
혁명에서 개혁으로
민주화운동에서 시민운동으로

대통령 선거 패배

87년 12월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민주화운동 진영은 김대중에 대한 비판적 지지론,
민중독자후보론, 야권후보단일화론으로 갈라짐

김대중 비판적 지지론은 소위 NL진영, 민중독자후보론은 PD진영에서 주장

백기완 후보가 중도 사퇴하면서 민중독자후보론은 실현되지 못했고
두 입장의 의견 차이도 해소되지 못했음

노태우가 당선되면서 두 입장 간에는 감정적 앙금까지 생김

독자후보론의 핵심 세력 중 하나가 6월 항쟁 중
부평의 가두집회 현장에서 출범을 알린 인천지역민주노동자연맹이었고

따라서 인천에서의 NL진영과 PD진영 간의 갈등은
다른지역보다 더욱 첨예했음

대중운동의 성장과 민주화 운동의 재정비

- 6.29 선언으로 개정된 헌법에 따라 집회, 결사의 자유 등 국민의 기본권이 보장되면서 억눌려왔던 대중운동이 활성화
- 노동운동이 활성화되면서 1990년 1월 한국노총과 별도로 전국노동조합협의회(이하 전노협)이 결성
- 1990년 4월 농민의 권익 보호와 민족자주경제 건설을 목적으로 전국농민총연맹(이하 전농)이 결성

대중운동의 성장과 민주화 운동의 재정비

- 87년 대통령 선거에서 비판적 지지를 했던 민통련은 더 이상 민주화운동 전체를 대표할 수 없게 됨
- 그에 따라 새로운 구심을 세울 목적으로 민통련은 자진 해산, 전국민족민주운동연합(이하 전민련)이 결성
- 전민련은 5공비리 청산투쟁, 광주학살 규명운동, 공안통치 분쇄투쟁 등 전개
- 그러나 전민련의 운동에는 전노협, 전농 등 대중운동단체가 합류하지 않음
- 1992년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민주화 진영은 NL과 PD의 대립이 재발생
- 전민련은 더 이상 구심체 역할을 하지 못하고 해산
- 전노협, 전농 등 대중운동단체들이 중심이 된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이하 전국연합)이 출범

대중운동의 성장과 민주화 운동의 재정비

그 시각 인천,
전민련 출범 이전인 1988년 9월
인천지역민족민주운동연합(이하 인민련) 결성

인민련은 인사연을 비롯해
인천지역 민주화운동 단체를 총망라했고 전민련의 방침을 따랐음

전민련이 해산하고 인민련도 해산
대신 1992년 2월 민주주의민족통일인천연합(이하 인천연합)이 출범
인노협, 인천지역대학생협의회, 전교조 인천지부 등 7개 단체가 참가

1992년 14대 총선과 민주화운동의 분열

1992년 3월

14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NL과 PD의 입장이 또 갈림

노동운동이 활발했던 인천은 그만큼 PD진영 세력이 강력하여
NL과 PD의 갈등도 다른 지역보다 심했음

이로써 민주화운동은 끝내 분열되어
서로 대결하는 양상이 됨

민주화운동의 쇠퇴

민주화운동 세력의 분열이 1992년 12월 대선에서도 재현됨
많은 운동가들이 정치권으로 진출하면서 민주화운동은 더욱 약화됨

6.29 선언 이후 국민의 직접 선거에 의해 대통령이 선출되면서
정권의 국민적 정당성이 확보, 정권은 더 이상 타도의 대상이 아니게 됨

따라서 정권 타도를 주장하는 민주화운동은 국민적 지지를 얻지 못함

대신 선거가 중요시되면서 일시에 모든 것을 바꾸는 혁명보다는
선거를 통해 하나씩 바꾸는 개혁이 주목받게 되고

선진적인 노동자가 아닌 시민대중이 중요시됨

시민운동의 등장

민주화운동이 위축되면서 나타난 것이 시민운동

1989년 창립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

1994년 창립된 참여민주사회와 인권을 위한 시민연대(이하 참여연대)

기존의 민주화운동 단체와 다른 것은

1. 민중, 노동자가 아닌 시민의 단체를 표방
2. 투쟁이 아닌 참여를 표방
3. 혁명이 아닌 개혁을 추구

시민운동의 등장과 인천

1989년 6월 목요회 결성

인천에서 최초로 결성된 시민운동단체

신부, 목사, 교수, 변호사, 의사, 약사 등 각계 전문가들로 구성
지역 현안에 대한 해결 방안을 모색했으나 정치적 논의는 배제

인천의 시민운동은 선인학원, 계양산 골프장 건설, 굴업도핵폐기물처리장
건설 등 지역 문제를 해결하면서 성장함

그중 골프장 건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계양산 살리기 범시민운동본부"를 결성하여 시민과 함께 운동을 전개
인천의 시민운동이 자리잡는데 결정적 역할을 함

1992년 12월 김영삼 당선

1992년 12월 대통령 선거에서 김영삼이 당선됨

비록 노태우, 김종필 일당과

3당 합당의 결과로 당선되었다는 한계는 있으나,

70, 80년대 민주화운동을 전개한 김영삼의 대통령 당선은

민간인 정부의 출현이라는 점,

국민의 직접 선거에 의해 선출된 정부라는 점에서 민주주의 발전의
한 획을 이룸

감사합니다!

(사)인천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
이우재

주안권 민주로드 안내

이우재 (사)인천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 이사장

□ 주안뒷역 : 주안공단 개발 - 인천이 노동운동의 중심지가 됨.

<주안공단 개발>

- * 1964년 제정된 “수출산업공업단지개발조성법”에 근거하여 인천에는 서울(제1-3단지)에 이어 두 번째로 제4단지가 부평에 조성되었고(1969년 10월), 이어 제5단지(1973년 7월), 제6단지(1974년 11월)가 주안에 조성되었다.
- * 그럼으로써 인천은 대한민국 유수의 공업지대가 되었고, 1960년대와 70년대 우리나라 경제발전을 이끄는 견인차가 되었으나 그 이면에는 열악한 근로조건에서 저임금과 장시간 노동에 혹사당하는 노동자들이 있었다.

□ 주안노동사목 (내일을 여는 집, 일명 골목집)

- * 저임금과 열악한 노동 조건 속에서 신음하는 노동자의 인간화와 주체적 성장을 위해 1977년 한국 천주교 역사상 처음으로 천주교 인천교구 부평노동사목이 만들어짐.
- * 이어 부천노동사목(새날의 집), 주안노동사목으로 확대됨.
- * 노동자를 위한 공간을 마련하여 자아발견 교육, 노동자 소모임 등 노동교육과 노조 지원활동을 전개함.
- * 주안 일대 노동자들의 쉼터 겸 활동 거점으로, 주안권 노동운동이 성장하는 데 매우 큰 도움을 주었음.
- * 1989년 4월 28일에는 주안노동사목의 활동에 앙심을 품은 영원통신(주) 직원과 사장 등 15여 명이 난입하여 사무실 집기를 부수는 등 난동을 부리다가 이를 말리려 온 주안5동성당의 백순기신부와 사무장 등을 폭행하는 일까지 발생하였음

□ 주안5동성당:

- * 1986년 호인수신부가 주임신부로 부임하면서 인천민주화운동세력들이 소모임활동이나 집회 장소로 이용(인사연, 인노련, 전교조 등) 호인수신부 자신이 인사연의 지도위원이었고, 동료 신부들을 인천지역의 민주화운동에 많이 끌어들었음.
- * 호인수 신부가 중심이 되어 민주화운동에 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았음.
인천5.3민주항쟁 때 호인수 신부가 300만원을 지원하여 주었음. 그 돈 중 일부로 인쇄기를 장만하여 당시 인사연 지도위원이었던 이성득 신부가 있던 부천 삼정동 성당에 설치해 두고 필요할 때마다 유인물을 인쇄하였음. 특히 6월항쟁 국면에서 대량의 유인물을 경찰의 감시를 뚫고 배포할 수 있었던 것은 이 인쇄기 덕분임.

- * 민주화운동을 하다가 수배된 사람들을 호인수 신부가 많이 은신시켜 줌.
그 대표적인 사람 중 하나가 “강철서신”의 저자로 유명한 김영환임.
호인수 신부는 김영환을 숨겨준 죄로 악명높은 이근안에게 조사를 받고 구속될 뻔했으나 당시 인천교구 주교였던 나길모주교의 항의로 백령도로 유배(?)가는 것으로 끝남.

□ 시민공원역 쉼터공원, 인천5.3민주항쟁 터:

- * 1985년 2/12총선에서 신민당이 직선제 개헌을 공약으로 내걸면서 국민들의 지지를 얻어 관제야당인 민한당을 꺾고 제1야당으로 등장.
- * 이후 직선제개헌을 놓고 전두환정권과 대립하면서 개헌에 관한 국민들의 관심이 고조되기 시작함.
- * 신민당은 1986년 3월부터 “개헌추진위원회” 시도지부 결성대회를 거행하면서 국민들의 개헌에 관한 관심을 유도하기 시작함.
- * 그 결과 3월 30일 광주에 20만이 넘는 시민이 모여 민주회복을 외치는 등 국민들이 신민당의 개헌추진위원회 결성대회에 많은 관심을 보이기 시작함.
- * 신민당의 개헌추진위원회 시도지부 결성대회는 4월 5일 대구, 4월 19일 대전, 4월 27일 청주에서도 많은 시민들의 참여 속에 거행되었고, 시민들은 신민당의 행사가 끝난 뒤에도 해산하지 않고 남아 경찰에 의해 강제 해산될 때까지 민주회복 등을 외치며 시위를 벌였음
- * 1986년 5월3일은 인천 시민회관(현 주안쉼터공원)에서 신민당 “개헌추진위원회 경기인천지부 결성대회 및 현판식”이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었음.
이 행사는 수도권에서 열리는 첫 행사라 향후 어떻게 전개될까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었음.
- * 당일 12시부터 수도권 일대의 학생, 노동자, 시민들이 모여들어 시위를 전개하기 시작함.
대략 5만 명 정도로 추산되는 당시의 시위대는 석바위 사거리에서 제일시장, 주안역에서 신기시장까지 이르는 주안사거리 일대를 점거하고 “독재타도”와 “민주주의”를 외치며 격렬한 시위를 벌임.
- * 신민당의 결성대회는 시위로 인해 무산됨.
- * 시위는 오후6시경 경찰의 무자비한 진압에 의해 해산됨.
- * 이날의 시위로 현장에서 잡힌 사람 중 129명이 형법 115조 소요죄로 구속되었고, 60여 명이 지명수배됨.
- * 이날의 시위는 80년 5월 광주민주항쟁이 좌절된 이후 최대의 시위였음.
- * 전두환정권은 이 시위를 좌경용공세력에 의한 체제전복기도로 규정하고 대대적인 탄압에 들어감.
- * 그 과정에서 부천서 성고문 사건이 발생했고, 급기야 1987년 1월 14일 남영동 대공수사본실에서 박종철이 물고문으로 사망함.
- * 이후 국민들의 분노가 극에 달하면서 6월항쟁으로 폭발하였고, 결국 6.29선언으로 이어짐.
- * 그런 의미에서 인천5.3민주항쟁은 87년 6월항쟁의 도화선이었음.

□ 주안1동성당:

- * 86년 인천5.3민주항쟁 당시 호인수 신부의 소개로 인사연이 5.3 당일의 시위용품들 이곳에서 제작하였고, 이어 인노련이 성당 지하실에서 시위에 필요한 각종 물품을 이곳에서 제작하였음.

* 87년 6월항쟁 당시 인천에서 시위는 대략 3곳을 중심으로 일어났는데, 동인천, 주안, 부평이었음.

주안1동성당은 당시주안권의 중심지였음.

그 이유는 당시 주임신부가 인천민주화운동의 대부였던 김병상신부였기 때문이었음.

* 87년 6월 17일에는 “6.10보고대회”가 열림.

“시민불복종과 최루탄 발사 규탄”을 결의하고 사제단과 수녀들이 앞장서 석바위까지 행진함.

그날 밤 12시 너머까지 석바위 일대에서 시위가 일어남..

□ 인천기계공업고등학교 : 4.19학생의거 기념탑

* 1960년 4월 19일 기계공고 학생들이 3.15부정선거에 항의하며 시위 전개

* 이후 23일까지 인천 시내 학생들이 시위 전개.

* 인하대 학생들은 21일에야 시위 전개

* 인천 4.19의 중심은 기계공고 학생들을 중심으로 하는 고등학생들이었음.

* 1964년 3월 27일 오전 10시부터 인천시내 7개 중고등학교 학생 9,500여명이 “대일굴욕외교반대” 시위를 전개하여 저녁 7시를 넘어서까지 계속함.

-> 이후론 고등학생들의 시위는 없음

중동구권 민주로드 안내

장희숙 도시자원디자인연구소 공동대표

노동운동의 시작 ~ 7,80년대 민주화 운동으로

1부 답사

①인천역 - ②한중문화관 - ③올림포스호텔 언덕 - ④선착장 건설과 초기 매립의 현장 - ⑤미군주둔 - ⑥하인천어시장 - ⑦인천역 뒤 복성포구 매립 - ⑧레드비치와 산업철도 - ⑨노동자마을 - ⑩동일방직



1. 인천역

1882년 영국과 일본이 최초로 한국에서 철도부설권 요구를 제기하였으며, 1882년 말부터 1885년 말까지 조선 조정에서 외교협상과 관련한 자문과 세관업무 관련 지원업무를 담당했던 독일인 밀렌도르프 (Paul Georg von Milendorff) 는 그의 수기에 한국에서 철도문제는 1882년부터 논의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다. 당시 경부선, 경인선 등이 논의 되면서 특히 인천

은 서울과 가까워 경인철도를 부설 할 경우 외국 물자의 반입과 국내물자의 유출이 용이하여 경제적인 이익이 예상되어 가장 먼저 경인철도 부설을 택하게 되어 1899년 9월 18일 한국 최초로 인천 (제물포) ~노량진간 33.2km의 경인철도가 개통되었다.



1899년 경인선 개통 당시의 인천역 모습 [출처] 경인선 개통 당시의 인천역|작성자 kkkk8155

1895년 10월 8일 일본의 미우라공사가 명성황후를 시해하는 사건으로 1896년 2월 11일부터 고종황제와 태자가 러시아 공사관으로 거처를 옮김 (아관파천) 에 따라 일본의 간섭이 악화된 시기에 미국공사 알렌의 활동으로 1896년 3월 29일 미국인 James R. Morse에게 경인철도 부설권이 특허되었다. 경인철도 부설권을 획득한 James R. Morse는 철도부설 장비 기재의 면세도입을 신청하고, 친구인 W. Townsend와 함께 철도회사를 설립하고, Col -Ibran을 기술책임자로 지정하는 등 경인철도 부설공사 준비를 시작한다.

한강 홍수로 인하여 한강교량 개통이 늦어짐에 따라 완공된 인천~노량진간 33.2km 구간에 대하여 1899년 9월 18일 개통식 거행하고 가영업을 시작한 후 1900년 7월 8일 한강교량이 준공됨에 따라 1900년 11월 12일 인천~서울간 경인철도 개통식을 거행하였다.(京仁鐵道 過去와 現在 / 孫吉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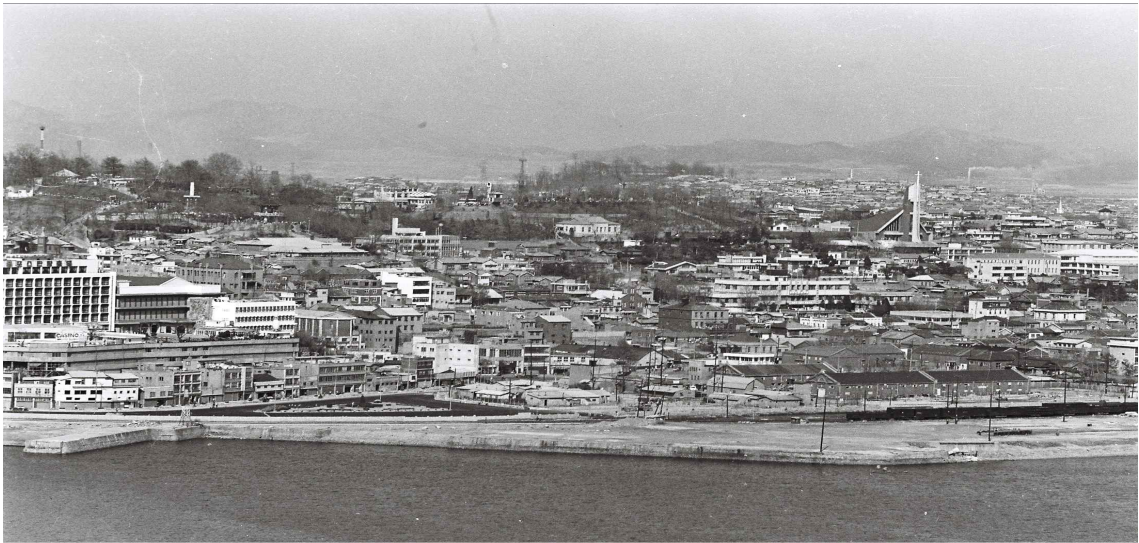
2. 한중문화관

인천광역시 중구가 인천 차이나타운의 활성화를 위해 항동 차이나타운 입구에 건립한 문화공간으로, 2005년 4월 16일 개관하였다. 부지면적 2,377.90㎡, 건축총면적 2,889.88㎡의 지하 1층·지상 5층 규모로 중국풍 건축양식으로 지어졌으며, 기획전시실(1층)·한중문화전시관(2층)·우호도시홍보관(3층)·정보검색실 및 도서열람실(3층)·공연장(4층) 등의 시설이 갖추어져 있다. [네이버 지식백과] 한중문화관 [韓中文化館] (두산백과 두피디아, 두산백과)

3. 해망대(올림포스 호텔 언덕)

인천 앞바다를 조망할 가장 적합한 장소인 해망대는 일찍부터 영국이 자리를 잡고 한양으로의 수로를 탐색해 왔다. 미국과의 조미통상조약에서 관세조항이 설정된 후 해관자리로 조선 정부가 지목한 곳은 해망대였지만 이미 자리를 잡은 영국은 내어놓지를 않고 후에 영국영사관을 이곳에다 지었다.

해망대 언덕 아래에서 현재의 선광아파트 언덕을 이어 매립한 땅에는 러시아영사관이 지어졌고 인천역이 이전해왔다. 해망대 아래 제일 먼저 만들어진 선착장은 해방 이후 점령군으로 들어온 미군이 사용하는 기지가 되었다.



4. 하인천 어시장

이나다 가즈비코의 서시장으로 시작되었다. 인천역 뒤의 매립이 진행됨에 따라 점차 북성포구 방향으로 이전되어 갔다.

60년대만 하더라도 전국의 가구가 겨울에는 김장을 했었고 저희 집도 예외는 아니라 매년 김장하기 전날에는 어머니가 제 손을 붙잡고 하인천 깡시장 (그렇게들 표현한 것으로 기억)으로 새우젓을 비롯해서 양념거리 사러 갔었습니다. 당시 시뻘겋게 녹이 쓴 도라무 깡에 새우젓을 가득 담아 팔던 장사치며 생선장수....시장바닥은 포장도 없이 질퍽질퍽 했었고 특히나 인상적으로 기억나는 것은 "복어"라는 간판을 단 가게(또는 술집?)가 무수히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 인천근해에서는 복어가 많이 잡혔었나요? 상인들이 복어알과 내장을 함부로 버려 이를 모르고 주워다가 끓여먹고 죽은 극빈자들 얘기도 들었었고요. 세월이 꽤 지나 겨울이면 당시의 기억이 떠올라 어머니께 그 위치를 물어본 적이 있었는데 연로하신 어머니는 정확히 기억을 못 하시더군요. 그간 하인천역 부근일 것이라고 짐작은 했었는데 여기에 올리신 세편의 글과 사진을 보고 이제야 정확한 위치를 알게 되었습니다. 오랜 의문이 풀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 인천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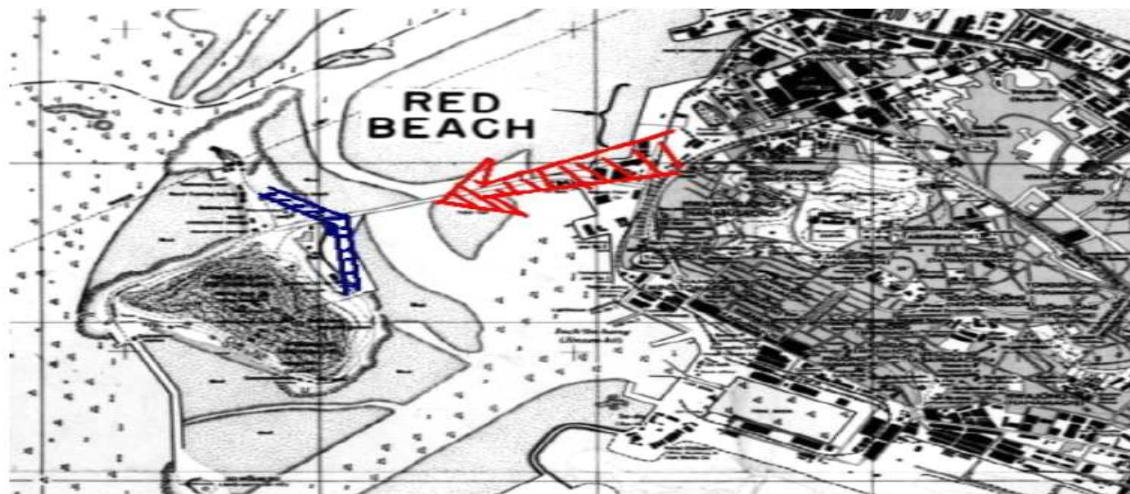
7. 인천역 뒤 북성포구의 매립

북성포구를 매립한 땅에는 경기어린이 어협공판장과 부대시설인 새우젓골목과 선원들을 상대로 하는 여인숙들이 있는 뽕골이 있었다. 현재 뽕골이 있던 여인숙을 철거한 곳에 주민들을 위한 소공원을 만들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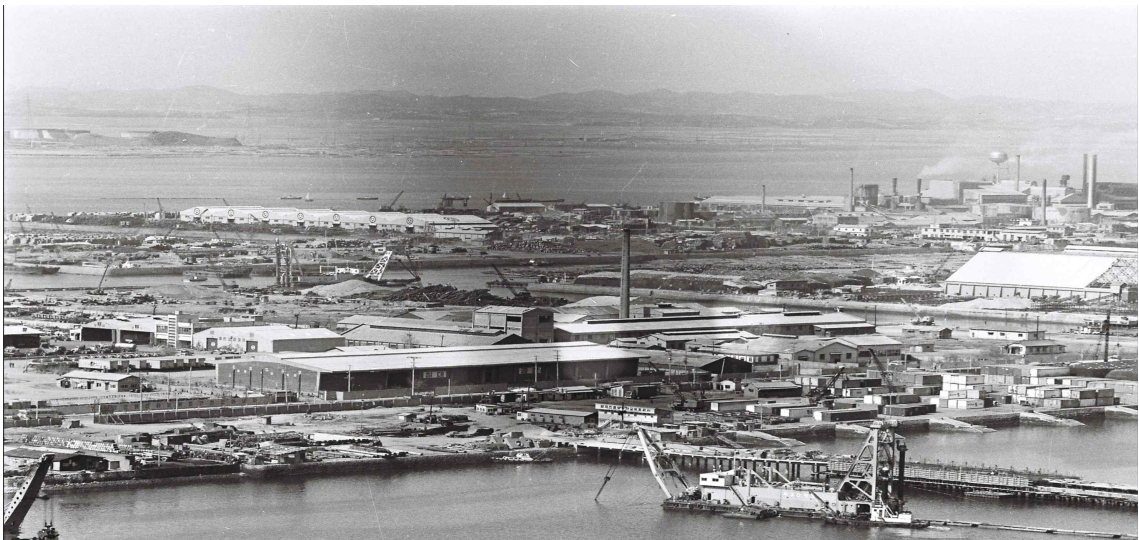


8. 레드비치와 산업철도

대한제분과 동일방직 사이의 해안이 인천상륙작전 2차 상륙지점인 레드비치다.



일제강점기 동구 화수동과 만석동 일대에 동양의 맨체스터를 만들겠다는 야심찬 계획아래 조성한 군수산업단지를 연결하는 산업철도를 부설했다.



1964.01.20.

미 제2수송사령부 75선박부대장이 쟁의중인 전국외국기관노동조합 인천지부장을 부대 사무실에 4시간 동안 연금시키고 사표에 강제 날인하도록 하는 사건 발생. 이날 **미CID**가 한국인 중

업원들을 불법 연행하여 지부장의 부정에 대한 허위진술서를 작성하도록 한 사실도 후에 밝혀
짐

1964.01.24.

전국해상노동조합 인천어로지부 소속 조합원 500여 명, 북성동 수협 경기도지부 위판장에서
「평화선 사수 인천지구 어민 궤기대회」개최

1964.01.25.

전국해상노동조합 인천지부, 신한공사와의 단체협약을 조인하고 2월 1일부터 실시

1965.02.15.

④인천부두노동조합 부위원장 겸 월미분회 분회장 외 14명, 노임 360여 만 원 횡령 사건과
관련해 관계 기관에 진정서 제출. 손정인 등은 하주인 조달청이 인상된 노임 360여 만 원을
전액 지불하였으나 이때까지 노동자들에게 전달되지 못한 일과 관련해 이의 시정을 요구하였
으나 별다른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자 이후에도 계속 진정과 고소를 이어감

1967.11.20.

④인천부두노동조합, 민수물자 하역노임을 65~100% 인상을 요구하며 쟁의 중 파업가부 투표
를 진행하여 노조원 1439명 중 1282명의 찬성으로 총파업 결의

1968.09.06.

④인천부두노동조합 간부들이 조합원들에 지급할 노임을 횡령한 혐의로 지부장, 대한제분 분
회장 등 5명이 구속됨

1970.02.23.

④전국부두노동조합, 3월 1일과 3월 23일 부산항과 인천항에 들어오는 컨테이너 수송선의 입
항과 관련해 '대책없는 컨테이너 전용화 반대'를 요구하는 쟁의행위 가부투표를 2월 26일, 인
천을 포함한 전국 18개 지부에서 거행하기로 결정

④부두노동조합 인천지부와 인천하역협회, 현행 노임을 15% 인상해 4월 1일부터 소급 적용한
다는 내용의 단체협약 갱신 체결

1974.03.24.

④인천부두노동조합, 우리나라 부두노동조합 사상 최초로 조합원의 정년퇴직제와 퇴직금 지급
제도 신설

1977.11.07.

④인천부두노동조합, 인천하역협회에 작업시간 8시간을 제외한 취업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수당
을 지급해 줄 것을 요청

1980.10.30.

④전국항운노동조합 인천항만지부·전국항운노동조합 인천운수지부, 「통합대의원대회」 개최

9. 노동자 마을



번히 쓰레기꾼이란 정작 벧섬도 산으로 쌓이고 낙정미도 많이 흘러 있는 지대조합 구역 내에는 얼씬도 못 하고, 목재 밖에 지켜 섰다가 벼를 싣고 나오는 마차가 흘러고 가는 나락을 쓸어 모은다. 그러나 기실은 구루마 바닥에 흘러 있는 나락을 쓸어 담는 척하고 벧섬에다 손가락을 박고 치마 앞자락에 후비어 내는 것을 본직으로 꼽는다.

그러다 들기면 욱바가지를 들쓴다. 쓰레받기 몽당비를 빼앗긴다. 양가슴은 떠다박질리고 채찍으로 얻어맞는다.

인천항 소금 하역 인부로 있다가 폐결핵으로 누운 남편을 대신해 매일 미곡 하역장에 나가 낙정미(落庭米)를 비로 쓸어다 호구(糊口)를 잇던 '쓰레기꾼' 노마어머니가 등장하는 단편소설 '남생이'의 한 대목이다. 이 소설은 인천 출신 현덕(玄德, 1909~미상)의 작품으로 1938년 조선일보 신춘문예에 당선됨으로써 세상에 알려졌다.

항구가 있으면 이렇게 그 그늘에 목매고 사는 외진 사람들이 있게 마련이다. 노마어머니도 그런 사람의 하나였다. 1930년대, 인천항에서 볼 수 있었던 이 같은 눈물겨운 풍경 뒤에, 끝내 들병이로 전락하고 마는 노마어머니의 어두운 실루엣이 어른거린다.(현대사 한바퀴 김윤식)출처 : 인천일보(<http://www.incheonilbo.com>)

호두형 포구 언덕을 반을 갈라 한쪽은 외국인묘지가 나머지는 조선인 노동자들의 마을이 있었다.



만석부두의 곡물 하역 광경. 1960년대 원조 양곡의 하역을 주로 했다. 세간에서는 팽이부리, 조기부두 등도 통칭 만석동 부두라고 혼용하기도 했다. 조선 말경에는 이 일대에 객주를 설치했던 중심부두였다./사진출처 =사진으로 본 인천개항100년

10. 동일방직

1969.10.11.

③인하공과대학 학생 500여 명, '3선 개헌안을 즉시 철회하라' 등이 적힌 플래카드를 들고 3선개헌 반대 성토대회 개최

전국섬유노동조합 ⑦동일방직 지부 지부장과 동일방직주식회사 인천공장 전무이사 간 「단체협약」 체결

1972.05.10.

⑨동일방직 노동조합, 정기대의원대회를 개최해 주길자를 노동조합 사상 최초의 여성 지부장으로 선출

1975.02.10.

⑦동일방직 노동조합, 주길자 지부장의 후임으로 이영숙 지부장 선출

1976.04.23.

⑦동일방직 노동조합, 정기대회를 개최할 예정이었으나 회사 측이 대회의 무산을 꾀해 회사 측 대의원 ○○○ 등 4명에게 불참하라는 지시를 내리자 이들이 대의원 대회에 참가하지 않고

송도로 야유회를 가면서 대회가 무산됨. 이로 인해 동일방직 남성 노동자 300여 명, 여성 노동자 1000여 명이 참가해 시위를 전개

1976.04.23.

⑦**동일방직 노동조합**, 정기대회를 개최할 예정이었으나 회사 측이 대회의 무산을 꾀해 회사 측 대의원 ○○○ 등 4명에게 불참하라는 지시를 내리자 이들이 대의원 대회에 참가하지 않고 송도로 야유회를 가면서 대회가 무산됨. 이로 인해 동일방직 남성 노동자 300여 명, 여성 노동자 1000여 명이 참가해 시위를 전개

1976.06.19.

⑦**동일방직 여성 노동자 500여 명**, 회사 측의 어용노동조합 결성에 반대하며 농성 시작

1976.07.22.

⑦**동일방직 노동조합**, 본조의 임원이 참석한 가운데 보고대회를 개최하려 하였으나 회사 측의 방해로 보고대회가 유회됨

1976.07.23.

⑦**동일방직 회사 측 대의원들이** 대의원대회를 개최하였으나 여성 조합원들은 대의원 대회가 무효라고 주장하며 농성 진행

1976.07.25.

⑦**동일방직 노동자들 반나체 시위 진행함**. 여성 조합원들은 이영숙 지부장과 이충각 총무를 경찰이 연행한 것에 항의하며 농성을 진행하는 과정에 72명이 연행되었으며 70여 명이 부상 당함

1976.07.26.

⑦**동일방직 여성노동자 300여 명**, 회사에 출근하지 않고 서울의 섬유노동조합 본조로 몰려가 연행된 사람들의 석방을 요구. 이날 밤 11시경 지부장과 총무가 석방됨

1976.12.25.

⑦**동일방직 노동자들**, 경기도로부터 배달되어온 동일방직 단체협약 승인 공문을 보고 크게 반발해 ‘동일방직지부 사건수습투쟁위원회’를 결성하고 ‘사건 해부식’을 2월 6일에 갖기로 결의

1977.02.04.

⑦**동일방직지부 사건수습투쟁위원회**, 서울 명동 천주교 문화회관에서 「전국 섬유노동조합 인천 동일방직 사건 해부식」을 개최하려 하였으나 노동청이 합의를 주선하고 모든 요구조건을 들어주겠다는 전달을 해와 해부식을 취소하고 6개 항에 합의

1977.03.21.

⑦**노동청, 동일방직 등 전국 12개 면방업체 16개 공장에 대해** 임금을 직권 조정하여 3월부터 지난해 11월분 기준으로 평균 25%씩 인상해 지급하라고 통고

1977.04.04.

⑦**동일방직 대의원 대회를 앞두고** 회사 측 대의원들이 방해할 조짐을 확인하고 조합원들이 대의원 대회장을 둘러싼 가운데 대의원대회를 진행하고 참석 대의원 31명의 전원 지지로 이충각을 지부장으로 선출 함.

1977.04.24.

⑦**전국섬유노동조합 동일방직 지부가 주최하고 인권위원회, 한국교회사회선교협의회, 산업선교 전국연합회, 전국정의평화위원회, 가톨릭 노동청년회, 천주교 인천교구, 교회여성연합회, 여성 유권자연맹 등이 후원하는 가운데** 서울 가톨릭명동문화관에서 「노동청 규탄대회」 개최

1977.06.15.

⑦**동일방직 노동조합 조합원 674명**, 노동조합에 복귀

1978.02.21.

⑦‘**동일방직 동물 투척 사건**’ 발생. **동일방직 노동조합 대의원** 선거일인 이 날 새벽 5시 30분, 회사 측 노동자들이 투표하러 온 여성근로자들에게 동물을 투척하며 선거를 방해한 사건
태평특수섬유 노동조합 조합원들, ‘노동조합 활동 인정’ 등을 요구하며 중식을 거부

1978.03.06.

⑦동일방직 노동조합 지부장·부지부장·총무 등 의장단이 본조에서 제명 처분을 받았으며, 본조는 현 노동조합을 사고지부로 처리함

1978.03.10.

⑦동일방직 노동자들, 서울 장충체육관에서 열린 노동절 행사장에서 '동일방직 똥물 투척 사건'에 대해 항의 시위 전개. 31명이 연행되었고 최명희·김연심·김민심 등이 구류 25일을 받음. 노동자 17명은 명동성당에서 항의 단식 농성 돌입

⑩답동 성당에서 「신·구교 연합 노동절 예배」가 끝난 후 동일방직 노동자 50여 명이 단식 농성 돌입. 이 날 명동성당 농성자들이 인천으로 내려왔으며 이총각 지부장이 연행돼 이튿날 29일 구류처분을 받음

1978.03.15.

⑦동일방직 노동자들, 68명이 답동 성당에서 인천산업선교회로 장소를 옮겨 단식 농성을 이어감

1978.03.17.

동아자유언론수호투쟁위원회, ⑦동일방직 노동자들의 투쟁에 동조하는 단식 농성 돌입. 3월 22일까지 5일간 계속됨

⑦동일방직 노동자 41명, 명동성당에서 단식 농성을 진행함

1978.03.20.

⑦동일방직·원풍모방·방림방직 노동자 100여 명, 기독교 방송국에 몰려가 동일방직 문제 등 고난 받는 사람들에 대한 보도를 외면하는 언론의 타락을 규탄하는 시위 전개

1978.03.21.

인권운동협의회·사회선교협의회·방림방직대책위원회·삼고사대책위원회·평화시장근로자대책위원회 등 5개 단체, 「고난 받는 동일방직근로자를 위한 기도회」 공동 개최

1978.03.23.

⑦동일방직 노동자들, 서울과 인천에서 진행한 단식 농성을 풀고 인천도시산업선교회에서 머무름

1978.03.26.

⑦동일방직 해고노동자 정명자를 포함한 노동자 6명, 여의도광장에서 열린 개신교 부활절 연합예배에서 단상을 점거하고 '노동3권 보장, 동일방직사건 해결, 산업선교는 빨갱이가 아니다' 등을 외치며 시위 전개. 이 일로 6명 전원이 구속됨

1978.03.27.

'동일방직사건 긴급대책위원회' 결성

1978.04.01.

⑦동일방직 노동자 124명, 해고당함. 이후 해고노동자들은 인천도시산업선교회 2층에 에서 거거하며 이곳에 '전국섬유노조 동일방직지부 임시사무실'을 두고 복직 투쟁을 전개함

1978.04.26.

⑦동일방직 해고노동자 60여 명, 회사로 찾아가 부당해고 철회 등을 요구하며 농성을 벌이다가 동부경찰서로 연행되었으며 그중 이 총각·김인숙이 구속돼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9월 12일 석방됨. 석정남·임재옥·정의숙·최연봉·최명희·김연심·김민심 등 7명은 불구속 입건됨.

1978.05.15.

⑦동일방직 해고노동자 등 15명, 섬유노동조합 위원장의 부산지역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 선출을 저지하기 위해 유인물을 살포

인하대학교 여학생회, 조화순 목사를 초청하여 '동일방직 사건의 전모를 밝힌다'란 주제로 초청강연회 개최. 인하대학교 여학생회는 이 자리에서 '동일방직 해고 근로자들에게 드리는 글'을 발표하는 한편, 인하대학교 각 호관에 동일방직 해고 노동자들을 위한 모금함을 설치함

1978.06.04.

⑦동일방직 해고노동자들, 성남 공단에서 유인물을 배포하다가 김명자·김영숙과 성남주민교회 김종국 등 3명이 구류를 받음.

1978.07.18.

⑦동일방직 해고노동자들, 재판정에서 회사 측 증인들과 충돌하여 7명이 구류를 받음

1978.09.25.

서울 기독교회관에서 「동일방직 해고근로자들을 위한 기도회」가 개최되던 중 경찰 100여 명이 진입해 참석자 40여 명을 연행함. 그중 인천도시산업선교회 실무자 유재남은 구류 25일,

⑦동일방직 해고노동자 석정남·김요자·최연봉은 구류 20일, 동일방직 해고노동자 전창순·이향자·김영순·안동순·안순애·조효순과 인천 광야교회 교인 임선임은 구류 15일 등을 받음

1980.02.14.

1978년 4월 해고된 ⑦동일방직 해고노동자 최연봉 등 6명,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위원장을 명예훼손,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서울지검에 고소장 제출. 이들은 한국노총 위원장이 1978년 1월 15일 전국 섬유노조위원장 주최 중앙회 회의석상에서 ‘동일방직 여성근로자들이 외부 불순세력에 의해 조종을 받고 독침을 갖고 다니며 문제를 일으키는 인물들’이라고 허위사실을 퍼뜨려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함

1980.03. *

⑦동일방직 해고노동자 복직투쟁 위원회, 3월 정기모임을 개최하고 ‘동일방직 해고자 124명을 즉각 복직하라’, ‘노동귀족 회개하라’ 등의 주장이 담긴 ‘결의문’ 발표

동일방직 해고근로자 복직 추진위원회, 성명서를 발표하여 동일방직 해고노동자 124명의 무조건적인 복직과 ‘노동귀족’에 대한 ‘엄중한 심판’ 요구

1980.04.12.

⑦‘동일방직 해고노동자 복직투쟁위원회’, 복직을 요구하며 거리 선전전 및 가두시위 진행

인하대학교 학생 안영근, 교내에서 유신헌법 폐지를 촉구하는 ‘민주회복에 관한 인하대학생의 선언문’이란 제목의 유인물을 제작·배포

1980.05.13.

⑦동일방직 해고노동자와 1000여 명의 노동자들이 ○○○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과 금속노동조합 ○○○ 위원장의 퇴진을 요구하며 여의도 노총회관에서 농성. 농성과 함께 ‘우리는 복직이 될 때까지 이 자리를 지킨다’는 제목의 성명서 발표

2차 답사

①동일방직정문 - ②다카스키양조장 - ③신촌 - ④삼화제분 - ⑤동아원 - ⑥우리미술관 - ⑦판유리. 조선기계제작소 - ⑧팽이부리마을 - ⑨조선기계제작소 사택 - ⑩화수정원마을 - ⑪일진전기 - ⑫도시산업선교회



1. 동일방직 정문



연기가 나고 있는 왼쪽 건물이 동일방직

강경애 작가의 '인간문제'와 조세희 작가의 '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의 배경이 되는 동일방직이 인천상륙작전 당시 일부 건물이 폭격을 당해 연기가 올라가는 모습이다.



동일방직을 포위한 경찰기동대

2. 다카스키양조장

일본인 매축업자 이나타 가즈비코에 의해 매립된 땅에 들어선 일본인 간장양조공장 중국인 노동자와 조선인 노동자 사이의 갈등이 있었던 곳이다.

3. 신촌

다카스키 공장이 들어서면서 주위에 마을이 형성되기 시작했고, 계속해서 사이토 정미소와 아리마 정미소가 들어서면서 더 많은 일본인 노동자들이 이주해왔다. 사이토 정미소는 악랄한 노동착취로 노동쟁의가 끊이지 않았던 곳이기도 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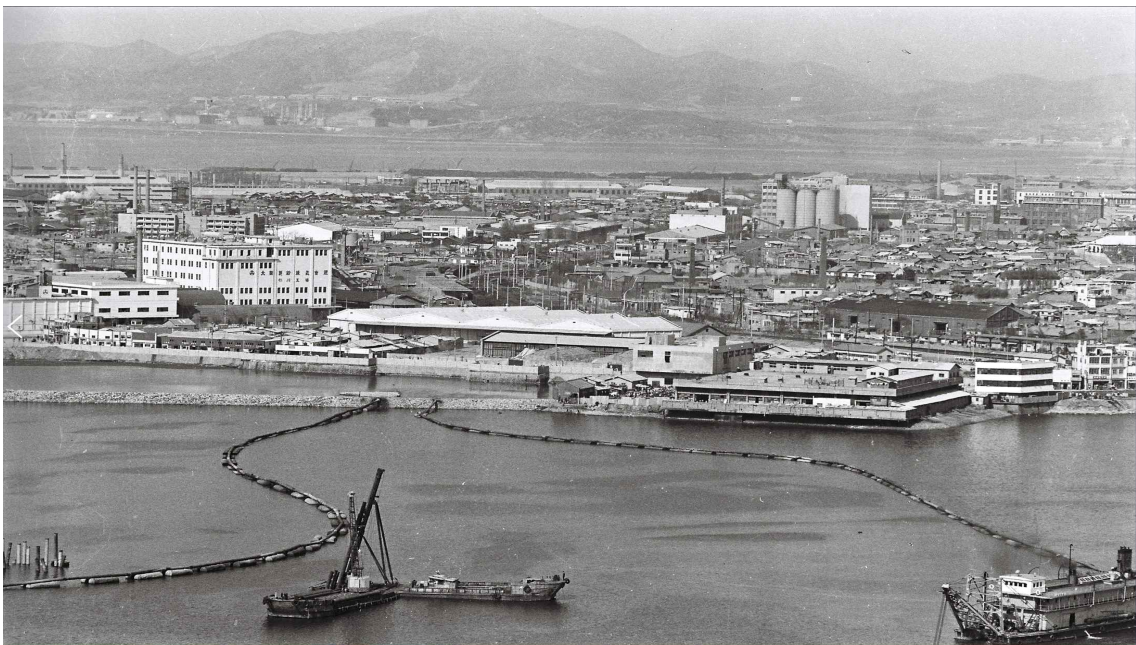


신촌의 현재모습

4. 삼화제분

삼화제분은 박 회장의 아버지 박무신 씨가 1957년 9월 24일 설립했다. 2012년 매출 600 억 원, 영업이익 80억 원을 기록했다. 규모는 크지 않지만 내실이 단단한 알짜기업이라는 평가를 듣는다. 수천억 원대 자산을 보유한 것으로 알려진 박만송(77) 삼화제분 회장은 정계는 물론, 여러 재벌가(家)와 혼맥으로 연결됐다. 친박(친박근혜)계 좌장 격인 서청원 새누리당 의원의 사돈이고, 사촌 박담희 전 온누리교회 부목사를 매개로 범LG, 범두산가와 혼맥이 연결된다.

국내 최초의 밀가루 공장은 1918년 만주, 함경도, 평안도 등에서 생산된 밀을 가공하기 위해 설립된 만주제분주식회사 진남포공장이었다. 남쪽에서는 1931년 풍국제분 용산공장이 최초였고 뒤이어 수입이 용이한 인천항 근처에 1935년 인천제분(현 대한제분)과 사이토제분(현 삼화제분)이 문을 열었다. 화평동 냉면거리에서 인천극장을 지나 조금 더 전진하면 일제강점기 시절, 동구 최대의 건물이었던 삼화제분의 5층짜리 적갈색 벽돌 건물이 나온다. 1938년 건설 당시의 외관을 아직 그대로 갖고 있다고 하는데 전혀 세월의 흔적이 느껴지지 않을만큼 튼튼하게 잘 지었다.



1963.06.29.

①만석동 소재 삼화제분 인천공장 노동자 72명, 고용알선을 맡은 동방운수와 삼화제분 인천공장에 대해 ① 중간착취배제, ② 단체협약체결, ③ 출입금지자 복직 ④ 노임인상 등을 요구하며 공장 내에서 농성 시작

1963.07.02.

①삼화제분 인천공장 노동자 72명이 6월 29일부터 농성을 진행하는 현장에 가족 30여 명이

몰려와 '50원으로는 도저히 보리밥도 먹을 수 없다'고 외치며 공장 안으로 들어가려다가 경찰의 제지로 실패함

1963.07.03.

6월 29일부터 농성 중이던 ①삼화제분 인천공장 노동자 72명 중 68명, 집회를 불법행위로 규정하고 출동한 경찰들과 충돌하는 과정에서 연행되어 불구속 입건된 뒤 7월 4일 자정에 귀가 조치됨

1963.07.04.

①삼화제분 인천공장 노동자들의 농성과 관련해 전국화학노동조합 인천지부 삼화제분공장 분회 부분회장 윤민호와 분회원 조동환·박용조 등 3명, 경찰에 구속됨

1963.07.06

①삼화제분 인천공장, '현장노무자 전원 계속 취업, 임금 15% 인상' 등 노사 간에 6개 항에 대한 협정이 승인됨으로써 정상 조업 시작

5. 동아원

아리마 정미소의 경우 역주 인천항 자료에 의하면 당시 세금을 868원을 낸 것으로 확인되지만, 사이토정미소의 경우 상공인 명부에 세금확인이 되지 않고 있다. 사이토 정미소의 규모가 아리마 정미소에 비해 훨씬 크에도 불구하고 세금을 내지 않은 것은 당시 군수물자 등의 일본 정부 정책을 위한 정미업시설이었기 때문이 아닐까 추측된다. 일본인 정미업의 성장기인 2기 시기에 있어 또 다른 두각을 보였던 지역이 있는데 바로 만석동 지역이다. 만석동 지역으로 1929년 지도에서 확인하면 경인철도에서 정미소를 써포트하기 위한 지선이 분리되어 나오고 있다. 현재 지선의 흔적을 찾을 수는 없었으나 현장에 찾아가보니, 지선이 분리되는 지점에 사택군들이 남아있다.(인천 정미업을 중심으로 한 산업유산군의 형성에 관한 연구 남지현 장희숙)

6. 우리미술관

문화체육관광부 주최,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주관,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후원한 2015년도 <작은 미술관 조성 운영사업> 공모를 통해 조성된 공간 인천광역시 동구청에서 만석동의 공가를 무상으로 제공받아 인천문화재단에서 운영하는 공공 문화시설. 우리미술관은 기획전시를 관람할 수 있는 전시관과 다양한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교육관·사무실, 작가가 거주하여 창작활동을 할 수 있는 레지던스(창작문화공간 만석) 예술창작 공간인 스튜디오(공동창고)로 구성.

우리미술관은 공동체적 삶을 토대로 인천의 지역성과 예술성을 가진, 모두에게 열려있는 사랑방으로서의 작은 미술관을 지향.

7. 한국유리

1956년 2월 14일 한국동란으로 피폐한 대한민국을 지원하기 위해 유엔 산하에 세워진 유엔크라의 지원으로 인천 만석동에 인천판유리공장이 세워지게 된다. 1997년 6월 40년 만에 판유리공장은 인천을 떠나 군산으로 이전.

[출처] 인천판유리(인천판초자) 공장|작성자 kkkk8155

한국 산업 재건을 돕기 위해 유엔크라가 한국에 최초로 세운 기업이 한국유리다.



1957년 운크라에서 제공한 사진



1964.05.09.

②한국판유리공장 노동자 150명, 임금 35.6% 인상 등을 요구하며 파업 돌입

1965.06.08.

②한국판유리 노동조합 조합원 500여 명, 임금인상 및 퇴직금의 계상 일자에 대한 합의가 결렬되어 파업 농성 돌입

1964.07.26.

노총 제44차 중앙위원회, 계엄이 선포되지 않은 지역인 인천 소재 인천노동회관(송림동)에서 긴급회의를 갖고 ‘노동조합법 개정 법률안 반대’를 결의

1965.04.21.

③인하공과대학 학생 500여 명, 교정에 모여 학교 측이 4월 20일 결정한 4월 21일~26일 간의 휴교 조치에 반발하여 정상수업을 요구하며 4월 22일 전원 등교하기로 결정한 후 해산함 고려대학교 부설 노동문제연구소, 「인천시노동사정분석」이란 책을 출판하여 인천지역의 노동쟁의 비율이 세계 최고라고 분석함. 노동문제연구소는 인천 소재 52개 노동조합 2만 7394명

을 대상으로 1965년 12월부터 1966년 11월에 걸쳐 노동쟁의 실태를 조사분석하였으며 해당 기간 동안 인천지역 31개 노동조합 1만 9665명이 쟁의에 참가하였다고 밝힘



1969.03.22.



잠수함을 제작하던 조선기계제작소

⑤인천중공업 노동조합, 제26차 임시대의원대회에서 노동쟁의 결의. 조합원의 임금을 현행 기본급의 40%를 인상 지급할 것을 요구하며 879명(남 853명, 여 26명)이 쟁의에 참가
1969.05.23.

⑥인천공작창 노동자 800여 명, 민영화 반대하며 쟁의대회 전개
국제실업 노동자 1063명, 임금 인상을 요구하며 쟁의

8. 팽이부리마을

김중미 작가의 '팽이부리마을 아이들'로 전국적으로 알려진 마을이다. 매축업자 이나다 가즈비코에 의해 묘도 해수욕장과 묘도 유곽으로 개발되었다. 팔경원이라는 건물과 아름다운 풍광으로 각광을 받던 명소이다.



묘도와 팔경원

9. 조선기계제작소 사택 마을

일제강점기 잠수정을 제작하던 조선기계제작소의 일본인 노동자들을 위해 지어진 사택이다. 계급별로 나뉘어져 규모가 달랐다. 화도고개 언덕 위에 사는 조선인노동자들에게는 부러움의 대상이었다. 그 옆에는 강제노동 수용소인 근로 보국대 건물이 남아있었지만, 2016년 동구청에 의해 철거되어 지금은 화수정원마을 새뜰마을 사업으로 공원이 되었다.

전쟁이 끝나면서 마포 경강상인들이 화수부두에서 화수조합을 만들고 어선들이 들어오게 되면서 사택을 매입해 거주하면서 마포 상인회로 정기적으로 모이곤 했다.



1969.12.31.

④인천제철주식회사와 인천중공업주식회사 간 합병 계약 체결. 합병 기일은 1970년 4월 1일이며 인천제철주식회사가 인천중공업주식회사를 합병하는 형태임. 같은 날 인천중공업 노동자들은 ‘각과별 권익 투쟁위원 일동’ 명의의 호소문을 발표하여 계약서 제10조에서 명기한 ‘현재의 중공업 종업원은 해고되고 제철과의 새로운 고용 계약을 체결한다’는 규정을 문제 삼아 권리 회복을 위해 단결할 것을 호소

1980.04.25.

④인천제철 노동자들, 현행 임금제도 개선 등 8개 항의 요구조건을 내걸고 농성 시작
동일방직 해고노동자 30여 명,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실에서 복직 및 노동조합 집행부 퇴

진을 요구하며 단식 농성 시작

1980.05.01.

⑧**인천제철 노동자들**, 4월 25일부터 농성을 벌여오다가 ‘연차휴가 보상비 지불, 기능사원을 위한 통근버스 운행, 정기승급제 실시, 임금 인상 미달가 인상, 현행임금제도 개선, 어용중역 퇴진 등의 요구조건에 대해 회사 측과 합의를 보고 7일 만에 농성을 끝냄

일신제강 인천제강소 노동자 100여 명, ‘임금 33% 인상, 상여금 연400% 지급’ 등 9개 항의 요구조건을 내걸고 정문을 폐쇄한 채 철야 농성 시작. 전국금속노동조합 일신제강지부 인천제강분회는 4월 25일에 개최된 노사협의회에서 40% 임금 인상을 요구하였으나 회사 측이 25%를 인상하자 33% 인상안을 제시하며 농성을 벌임

1980.05.03.

⑧**인천제철 노동자 2명**, 포고령 위반 혐의로 구속. 이들은 4월 25일 인천제철 노동자들이 임금 인상 등을 요구하며 농성을 벌이던 중 차를 타고 회사 밖으로 나가던 총무이사, 총무부장, 운전사 등을 폭행하고 전무의 허수아비를 만들어 회사 소유 차량 위에서 불을 붙여 태운 혐의를 받음

1967.06.12.

④**인천산업전도위원회**, 6월 12일부터 6월 30일까지 「노동조합 지도자 교육」진행. 13개 사업장에서 42명이 참가하고 30명이 수료함. 당시 **인천산업전도위원회는 내리교회 이명구 목사**가 위원장을 맡고 있었으며 실무자들의 역할과 위원회 구성은 아래와 같음

1967.08.17.

1970.01.05.

④**인천기독교 도시산업선교위원회**, 1월 5일부터 7월 15일까지 부평지역 현황조사 진행

1970.02.21.

④**기독교도시산업선교위원회·영등포도시산업선교연합회**, 온양 수도호텔에서 **경인지역 노동조합 대표급 지도자 20명(인천지역 10명)**을 초청하여 ‘70년대의 경제발전에 따른 노동운동의 과제’를 주제로 「노동조합 지도자(지부장급) 연구회」 개최

1970.11.22.

④**기독교도시산업선교위원회**, 화수동 소재 **대건중·고등학교 강당**에서 ‘근로자의 사회참여와 국가발전’이란 주제로 박성종 신부, 이도선 교수 등을 강사로 초청하여 「노동대강연회」 개최. 강사로 예정됐던 노동청장은 참석하지 않았으며, 강연회 시작 강사 중 한 명이 전 신민당 노동정책 기조 팸플릿을 청중에게 배포해 물의를 빚음

1971.02.08.

④**인천기독교도시산업선교위원회**, 「노동과 소명」 발행

1971.03.03.

전국외국기관노동조합 부평지부, **인천시 제2공보관 회의실**에서 조합원 5백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1차 정기대의원대회를 개최하고 서정곤을 지부장으로 재선출.

1971.05.18.

전국금속노동조합 경기지역지부 신진자동차 부평공장 분회, **인천상공회의소 회의실**에서 조합원 6명이 참석하여 결성. 분회장엔 김창수 선출.

1971.06.08.

④**인천기독교도시산업선교위원회**, 위원회 사무실을 중구 인현동 26번지(해성빌딩 5층)에서 동구 화수동 183번지로 이전

1972.05.13.

1972.07.28.

④**인천기독교도시산업선교위원회 조승혁 목사**, ‘보라, 왜 이렇게 되었는가?’란 제목의 산업안전포스터 제작 건과 관련해 중앙정보부에 연행됨

1972.07.13.

④인천 동지역 선교문제협의회, 화수동 성당에서 모임을 갖고 '산업학교, 지역사회를 위한 프로그램, 기독교 근로인 중심의 훈련' 계획 등에 대하여 논의함

1972.08. *

④기독교도시산업선교회, 인천서부지역위원회·인천 동구지역·부평지역 등 3개 지역위원회를 구성하기로 계획함

1973.09.15.

④인천기독교 도시산업선교위원회 노사분과위원회, 9월 16일까지 이틀간 소사 버들 캠프장에서 연구회 개최. 지용택을 초청하여 '경제발전과 노동조합 활동'을 주제로 한 강연 등을 진행

1973.10.27.

④인천기독교 도시산업선교위원회, 「제1회 근로자 신앙 강좌 : 노동자 예수」 개최

1973.11.23.

③인하대학교 기독교학생회, 「기독교학생선언」 발표

1973.11.27.

④인천기독교 도시산업선교위원회, 답동 가톨릭회관 5층에서 11월 30일까지 4일간 노동조합 간부 등을 대상으로 한 「제11회 노동조합 정기 지도자 훈련」 실시

1973.12.19.

④인천기독교 도시산업선교위원회, 산곡동 성당에서 「노동자 첫모임 : 작은이들의 숨결」 행사 개최

1977.07.29.

④인천도시산업선교회, '노동자로서 어떻게 살 것인가'란 주제로 7월 31일까지 자월섬에서 「하기수련회」 진행

1977.09.10.

④인천도시산업선교회, 11월 12일까지 3개월 간 11개 공장 실무자 25명을 대상으로 인천도시산업선교회에서 강연회 개최

1974.01.21.

전국화학노동조합 경인에너지 지부 결성

1974.03.10.

④인천기독교도시산업선교회, 답동 가톨릭회관 강당에서 「노동자의 날 축하예배」 개최

1974.05.15.

④인천기독교도시산업선교회 총무 조화순 목사, 노동자들과의 예배에서 행한 설교가 문제가 되어 긴급조치 1호 위반으로 구속됨. 조화순牧사는 1월 17일 김경락 목사 등의 구속과 민청학련 사건에 대해 '이분들은 죄를 지어 감옥에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았기 때문'이라고 발언함

1974.12.13.

④전국도시산업선교회 소속 목사와 구속자가족협의회 회원 등 30여 명, 서울 종로5가 기독교 회관 소회의실에서 천주교 인천교구 부주교 시노트 신부와 감리교 선교사 조지 오글 목사에게 대한 소환 심문은 정부의 종교탄압의 구체적 표현이라고 주장하며 이를 중지할 것을 요구하는 성명서 채택

1974.12.14.

④인천 등지에서 산업선교활동을 벌여온 미국인 선교사 조지 오글 목사, 입국 목적 이외의 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법무부로부터 강제 퇴거 명령을 받고 출국함.

1975.03.08.

④민주회복 국민회의 인천시지부, 화평동 덕성반점에서 결성. 대표최고위원에 인천도시산업선교회 총무 조화순을 선출하고 고문에 최양옥, 조철구와 전 신민당 인천시당 부위원장 김진두를 위촉함

1978.09.25.

서울 기독교교회관에서 「동일방직 해고근로자들을 위한 기도회」가 개최되던 중 경찰 100여 명이 진입해 참석자 40여 명을 연행함. 그중 인천도시산업선교회 실무자 유재남은 구류 25일, 1978.11.07.

④인천도시산업선교회 총무 조화순 목사, 11월 6일 「신·구연합기도회」에서 행한 인권사례보고 내용이 문제가 돼 「긴급조치 제9호」 위반으로 구속됨.

1980.05. *

④화수동에 민들레 어린이집 개소. 인천도시산업선교회 부설 놀이방으로 설립되었음. 이후 ‘친목회’라는 이름의 후원회가 만들어져 ‘83친목회’(1983년 놀이방을 졸업한 아이들의 엄마 모임)를 처음으로, ‘569친목회’(1985·1986·1989년 졸업생 엄마 모임), ‘별난 친목회’(별나게 살아보자는 엄마 모임) 등이 생겨남

1980.05.18.

④인천도시산업선교회, 이날 새벽 화수동 소재 사무실에 괴한이 난입해 출입문을 손상시킨 일과 관련, 비상계엄의 전국 확대와 총무 조화순 목사의 구속 등과 때를 같이 하는 일이니 종교탄압의 일면으로 보아야 한다는 입장을 밝힘

1980.09. *

④민들레 어린이집 개설. 인천도시산업선교회 총무로 일하던 조화순, 김동완 목사들과 유효순 교사를 중심으로 문을 열어 2~6세 맞벌이 빈곤층 어린이의 보육 사업을 통해 주민모임을 발전시켜나감

1974.02.20.

인화여자고등학교 학생 1200여 명, 학교 측이 학생증을 발급해주지 않고 주산, 타자 등의 특활시간을 인천공업전문대학에서 받도록 하는 등 부적절한 조치에 불만을 갖고 2월 21일까지 등교 거부 단행. 2월 22일부터 정상수업 시작

1974.06.23.

만석감리교회 청년회, 만석감리교회에서 「제1회 근로자 연합 헌신 예배」 개최

1974.10.20.

⑩천주교 인천교구 가톨릭노동청년회, 화수동 성당에서 「지학순 주교와 사회정의의 위한 기도회」를 개최하고 사건이 공정하게 해결될 때까지 매주 화요일 기도회를 갖기로 함

⑩화수동 성당 등 인천시내 3개 성당에서 「인권회복을 위한 기도회」 개최. 이날 천주교 정의구현전국사제단과 한국정의평화위원회가 공동 집전하는 「인권회복을 위한 기도회」가 세계 인권선언일을 맞아 전국 13개 교구에서 동시에 개최됨

1975.04.10.

③인하대학교 총학생회, 인하대학교 대강당에서 비상학생총회를 개최하고 ‘긴급조치 7호를 즉각 철회하라’, ‘학원의 자유화를 보장하라’, ‘자유와 민주를 회복하라’ 등 현 시국에 대한 4개항의 결의문 채택. 이후 인하대학교 정문과 후문 등지로 진출해 가두시위를 벌이려다 경찰이 교문을 봉쇄하면서 학내에서 시위를 전개한 후 해산. 일부 학생들은 정문을 빠져 나가 용현고 개까지 이동하며 가두시위를 전개하였으나 최루탄을 쏘며 저지하는 경찰의 진압에 막혀 해산함.

1975.04.12.

③인하대학교, 학생 시위로 인해 임시 휴강에 들어감. 4학년은 4월 23일에, 1·2·3학년은 5월 9일에 수업 재개

인하대학교 여학생회, 조화순 목사를 초청하여 ‘동일방직 사건의 전모를 밝힌다’란 주제로 초청강연회 개최. 인하대학교 여학생회는 이 자리에서 ‘동일방직 해고 근로자들에게 드리는 글’을 발표하는 한편, 인하대학교 각 호관에 동일방직 해고 노동자들을 위한 모금함을 설치함

1978.06.04.

1980.05.15.

인하대학교 학생 3000여 명, 오전 11시 30분 인하대학교 교내에 모여 학생총회를 개최하고 '계엄령을 해제하라', '제도언론을 철폐하라' 등의 플래카드를 앞세우며 가두시위 전개. 학생들은 주안역으로 가기 위해 학익로를 지나던 중 최루탄을 쏘는 경찰에 맞서 투석전을 벌이다가 인하대학교 학생 임학성·정해수 등이 불발 최루탄에 맞아 부상당함. 이중 경찰의 저지선을 뚫은 학생 1500여 명은 신기촌 방면에서 다시 모여 플래카드를 앞세우고 행진. 낮 12시경 주안역 앞에 집결했으며 경찰이 최루탄을 발사하자 다시 흩어짐. 이후 제물포역을 거쳐 동인천으로 향하던 학생들은 송의삼거리에서 경찰의 저지에 막혀 다시 분산, 골목 등으로 피신하며 오후 2시 20분경 동인천역 광장에 재집결. 이곳에서 인천교육대학 여학생 800여명, 인천대학교 학생 200여 명이 합류함. 동인천역 광장에서 성토대회를 벌이려던 학생들은 경찰이 최루탄을 쏘며 막자 지하도 등을 통해 대피, 다시 옛 삼화고속 버스정류장 앞길에 모여 연좌 농성을 벌인 후 전철을 통해 서울로 향함

1980.05.16.

인천교육대학·인천대학교·인하대학교 학생대표를 포함한 전국 56개 대학 학생대표 96명, 오후 5시 50분경 이화여자대학교 연구관에서 「제1차 전국대학총학생회장단 회의」를 개최하고 이날 새벽에 결의한 '정상수업을 받고 가두시위를 일단 중지한다는 사항'을 재확인함

인천교육대학 학생 600여 명, 오전 10시 50분경 인천교육대학 강당에 모여 시국에 대한 성토대회를 개최한 후 오후 1시 30분경 해산



부평권 민주로드 안내

노동자의 도시 부평과 민주화 운동의 유적지

이형진 민주노총 일반노조 위원장

들어가며

우리는 미래를 준비하기 위하여 과거를 살피고 현재의 모습을 점검해야 한다.

2,000년대로 접어들면서 인천지역의 모습도 급격하게 바뀌었다. 재개발 과정은 일제시대를 거쳐 50년대 이후 쌓여온 근대화의 과정을 더 이상 확인하기 어렵게 환경을 변화시켜 나가고 있다.

부평지역의 민주화 운동 유적지를 확인하는 민주로드 탐방을 기획하면서 한국전쟁 이후의 부평일대의 변화과정과 6,70년대 공단의 발달과정에 대하여 짚어보아야 한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통계수치를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삶의 변화에 초점을 맞추어 부평을 포함하여 인천지역의 특징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민주화 운동의 역할을 파악할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현재의 우리를 이해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1. 과거로부터

○ 밑그림1 - 60년대 이전

일제 강점기를 거쳐 한국전쟁과 미군의 주둔은 한반도의 역사에 중요한 계기이다. 특히 인천의 역사에서 미군의 존재는 군사적 의미만이 아니라 주민의 삶에 구체적인 영향을 미쳤다. 경제개발 계획의 일환으로 부평4공단이 개발되는 60년대 말까지 부평지역은 미군이 주둔하는 군사도시로서 형성되었고 주민들은 미군부대와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것이 주요한 삶의 방식이었다. 두 가지의 글을 소개한다.

인천은 외세에 의해 강제로 개항된 이후 외국 문물을 가장 먼저 수용한 도시로, 중일 전쟁 이후 인천은 여러 군수공장들이 들어서게 되었다. 부평에 있던 인천조병창은 일제강점기 시절 한국 최대의 군수공장이었다. 일제가 부평을 군수기지로 조성한 이유는 여러 가지였다. 먼저 부평은 분지여서 안개가 심해 연합군의 공습을 피할 수 있는 지리적 이점이 있었다. 하늘에서 보면, 부평은 원형의 분식구가 들어선 모양이다. 만월산, 원적산, 철마산과 계양산으로 이어지는 한남정맥에 의해 둘러싸인 분지지형이다. 화강암이 편마암보다 빠르게 침식돼 중앙부가 깊게 파이면서 부평에 분지가 형성됐다. 둘째는 인천항과 서울과 이어진 경인철도 시설이 인접해 전쟁물자 등의 수송이 용이했다. 여기다 당시 수도인 경성의 우수한 기술력과 학생 등 노동력을 풍부하게 제공받을 수 있는 이점이 있었다. 미군 역시 일제가 인천과 부평을 군수기지로 선택한 이유를 그대로 받아들였다. 6.25를 거치면천서 인천과 부평은 더욱 군사기지로 조성됐다.¹⁾

1) 한만송 「미군기지와 양키시장」 『2018인천광역시 민속조사보고서 - 주제별 조사보고서4』

일본 육군조병창은 1930년대 말 조성공사가 시작되었지만 공장의 모습을 제대로 갖추기 시작한 건 1940년대 이후다. 건설부지는 100만여평, 건설부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일본군 20사단이 사용하던 부평연습장 부지 70만평을 이관받고 주변토지 33만여평을 매수할 예정이었다. (중략) 광복 후 곧바로 미군이 시설을 그대로 인수해 애스컴(ASCOM)이란 이름의 군수사령부 기지로 사용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대략 애스컴이 폐쇄되던 1973년 이전까지의 미군기지 규모와 비슷할 것이다.²⁾ 그렇게 본다면, 일본육군조병창은 북쪽으로는 미육군교도소가 있던 산곡북초등학교 인근까지 이르렀고, 남쪽으로는 일명 ‘거지부대’가 있던 부평서중학교까지 나아가 있었다. 서쪽 끝은 명신여자고등학교 자리다. 철마산 관통도로가 뚫리기 이전이기 때문에 일제 강점기 당시의 지형대로 본다면, 철마산 중턱까지 조병창 시설이 조성되어 있던 셈이다. 동쪽은 부평1동 동아아파트까지다. 여기서 굴포천과 만난다. 주요공장들은 부평역 앞에 밀집되어 있었다. 지금 잔류해 있는 미군기지인 캠프마켓 부지에 해당한다.³⁾

○ 밑그림2 - 60년대 경제개발 과정 및 공단의 형성

부평에 수출 공업단지의 밑그림이 그려지기 시작한 것은 1962년 ‘제1차 경제개발계획’부터이다. 전쟁으로 인한 정치 사회적 불안의 해소와 자립적인 경제체제를 구축할 필요성이 커졌기 때문이었다. 수출공업단지 예정지 물색이 이루어지자 인천상공회의소는 인천유치의 가능성을 예상하고 개발 계획서를 제출하였으며 공업단지 유치를 위한 대내외적 노력을 진행하였다. 그러나 1964년 서울 구로동이 수출산업공단으로 선정되었고, 인천시는 같은 해 10월 부평지구를 별도의 공업단지로 지정해줄 것을 요구하는 신청서를 상공부에 제출하였다. 그 무렵만 해도 생활권이 완전히 분리되어 있었던 인천과 부평은 치열한 유치경쟁을 벌였다. 가좌동 해안지대와 부평을 놓고 유치경쟁이 치열했는데 가좌동 해안지대를 매립해서 수출공단을 조성하자는 주장이 거의 굳어지는 듯 했다. 그러나 해방이후 상대적으로 소외감을 느낀 부평 주민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이에 40여명의 지역인사들이 동참하여 ‘수출산업공단 부평유치추진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당시 10~80만원씩 각출하여 대상용지를 미리 확보하는 등 전방위의 노력을 펼쳤다. 결국 1965년 6월 16일 공업단지 심의위원회는 부평지역을 수출공단으로 지정하였고 동년 11월 23일 상공부장관으로부터 ‘인천수출산업공단’의 정식인가를 얻게 되었다. (중략)

부평수출공업단지의 구성에 따라 인천의 경제는 빠르게 성장하였으며 경제규모 역시 지속적으로 확대되었다. 노동자의 수 역시 꾸준히 증가하였다. 반면 경제발전의 시대적 흐름과는 반대로 1980년대 인천지역 노동자의 월평균 임금수준은 최저생계비 충족률의 50%도 넘지 못하는 최악의 상황이었다. 또한 인천지역 노동자들의 노동시간은 전국 평균치보다 주당 2~4시간 더 많은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고 있었다. 당시 OECD국가 노동자들의 노동시간이 주 40시간대였던 것에 반해 한국 노동자들은 평균 55시간의 일을 했는데 인천은 이보다 더 많은 노동을 해야 할 정도로 상황이 열악하였다.⁴⁾

가. 70년대 부평공단의 노동자, 삶과 투쟁

70년대 부평공단의 50개 입주업체가 본격적으로 생산을 시작하면서 수출공단이라는 이름에 걸맞는 양적 성장을 이루기 시작하였다. 68년 이전까지는 부평이 인천에서 수출에 차지하는

2) Army Support Command. 주한미군지원사령부

3) 김현석 「부평에 새긴 노동의 시간」 『2018인천광역시 민속조사보고서 - 주제별 조사보고서3』

4) 부평역사박물관 기획전시실 「피와 땀 그리고 눈물」 2018.11.

비중은 3.5%에 불과하였으나 1년 후 22.4%, 70년에 들어서면서 무려 42.5%를 차지하는 폭발적인 성장을 이룬 것이다.

부평 미군기지, 즉 애스컴도 1970년대 초까지는 변함이 없었다. 1973년 전후로 애스컴 총사령부가 대구와 왜관 등으로 이전해가고 주한미군 철수가 이루어지면서 애스컴에서 일하던 한국 노동자들(외기노조 조합원)의 숫자도 급격히 줄어들었다. 대신 미군들이 떠난 경제의 빈자리를 채워간 것은 부평공단으로 일하기 위해 전국에서 모여든 노동자들이었다.

공단의 주변으로 노동자들의 주거지역이 형성되었다. 부평 공단의 주위로 원적산 아래쪽으로 효성동, 청천동, 산곡동 등지의 노동자 밀집 주택은 현재 재개발이 곳곳에 진행 중이지만 아직도 원시적 형태의 원룸(?)구조를 갖춘 채 한 층에 5~7개까지 방이 준비해있는 쪽방집들이 더러 남아있다. 양옥집으로 들어가 2층 복도를 따라 자취방 앞의 문을 열면 곧바로 부엌이 있고 한 발 더 들어가 방문을 열면 2~3평 남짓한 방에 비닐 옷장 하나 있는 식이다. 아침에 출근시간이 되면 아래층 화장실 앞에 줄을 서야 한다. 이것은 아주 고역이다. 그래서 아침 일찍 공장에 출근하면 식사를 제공하는 회사도 더러 있었다. 야근자들이 아침 식사를 할 때 눈치껏 밥을 먹고 화장실도 다녀오는 것이다.

부평공단에서 경인고속도로를 바라보면서 오른편으로 부개동, 삼산동, 갈산동, 작전동, 계산동은 부천지역과의 경계에 닿아있다. 90년대 중반까지 부천 인접지역까지는 김포평야의 끝자락이었고 시골마을에 공장과 무허가 가건물, 가게들이 즐비하게 늘어서 있었다. 주말에 노동자들이 송내쪽이나 부천 인근의 복숭아, 포도밭에 소풍을 가기도 했다.

○ '어느 돌맹이의 외침'은 70년대 삼원섬유에서 요꼬 노동자로서 노동운동에 발을 디게 되는 유동우의 이야기이다.

유동우를 비롯하여 황영한, 최영희 등은 화수동의 도시산업선교회 역할을 부평공단에서 백마교회를 통하여 가능하게 만들었다. 70년대 수출자유지역은 노동조합의 설립도 만만치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노력으로 부평 공단에서 최초로 민주노조를 건설하였으며, 이후 반도상사 등 여성 사업장의 노조 건설이 이루어지는 계기가 되었다.

나. 80년대 노동운동의 발전

80년 광주항쟁을 지나면서 인천지역의 노동운동에 나타난 주요한 변화는 변혁적 노동운동을 지향하는 학생출신 현장 활동가들의 등장이었다. 수도권에 있는 대규모 공업도시인 인천은 사회변혁을 지향하는 학생출신 운동가들이 노동현장으로 진출하고자 할 때 적합한 조건을 갖추고 있었으며 이들의 활동이 84년 대한마이크로 노동조합의 결성, 84, 85년 대우자동차 투쟁과 여러 사업장의 투쟁으로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86년경에는 사업장에 투신한 학생출신 활동가들과 노동자들의 현장투쟁이 여러 사업장에서 이루어졌다. 인천 5.3 민주항쟁을 거치면서 일시적으로는 정권의 탄압과 소강국면이 있었지만 87년 6월 항쟁과 7,8월 노동자 투쟁은 인천지역에서 폭발적인 노동운동의 성장으로 나타났다.

다. 90년대 이후

87년 노동자 대투쟁 이후 부평공단은 새로운 활력으로 가득했다.

여전히 봄비는 공단 출근길에는 무엇인가 새로운 기대와 자신감이 있었다. 가끔씩 들리는 노조탄압 소식에 조합원들이 퇴근시간에 몰려가 싸우고 밤새 구사대를 물리치고 공장을 지키다 출근한 이야기도 자랑스럽게 나누곤 했다.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니지만 뭉쳐서 싸우면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은 공단에 충만했다.

87년 투쟁과정에서 건설된 노동조합으로 부평공단에 10개가 넘는 인노협(인천지역노동조합협의회) 사업장이 있었고 규모있는 사업장의 노동조합 민주화투쟁이 진행 중이었다. 대우자동차와 삼익악기를 비롯하여 한국샤프, 해태전자, 풍산금속, 진도, 해태음료 등은 한국노총 소속

사업장이었으나 어용성을 극복하고 노동조합의 민주화를 이루기 위한 투쟁이 해고노동자들과 현장조합원들 연대를 통하여 조금씩 진전되었다.

○ 1989. 9. 4. 경동산업 분신투쟁

○ 1994년 대한마이크로 노동조합 재건투쟁

2. 미래로

인천을 생각하면 개항과 식민지 시대 열강의 각축, 한국전쟁과 맥아더 동상, 그리고 인천항을 둘러싼 물류의 흐름, 하인천부터 부평에 이르는 4,5,6공단과 노동자들의 투쟁, 이러한 것들이 두서없이 떠오른다. 현대사의 굴곡진 세월을 증언하는 것들이 인천에 많은 것은 그만큼 역동적이었다는 것이고 속절없이 그 세월을 감내한 사람들 속에는 이러한 격변이 몸속에 체현되어 있을 것이다. 60대들에게 미군부대와 꿀꿀이죽 이야기는 어렵지 않게 들을 수 있고 50대들 중에 작업장에서 데모 한 두 번 하지 않은 사람은 별로 없다.

인천을 전체로 사고하는 것은 부평을 중심으로 인천을 이해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오랜 시간 인천의 정체성에 대하여 황해를 중심으로 사유하는 최원식 교수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한다.

“인천은 서해안 남북을 잇는 배꼽이다. 남북분단과 6·25가 인천몰락의 서주에 해당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인천은 통일과 사활적 관계를 이루고 있다는 사실을 새삼 깨닫게 된다. 그것은 인천이 배출한 혁명가 또는 정치가들이 남북 양 독재정권에 의해 비극적으로 몰락한 사건들에서 단적으로 표현된다.(중략)

인천은 동아시아, 나아가 세계와 소통한다. 국제항구 인천은 환황해권의 중심거점의 하나다. 중국 대륙의 상하이를 비롯한 홍콩 마카오 등과 연결하여 번영했던 인천은 분단에 이어 1949년 중국혁명의 성공이후 황해가 단절되면서 건너갈 대륙을 상실한 채 죽은 항구로 몰락하였다. (중략)

최근 인천은 제2의 개항기를 맞이하고 있다. 탈냉전시대의 도래와 함께 분단체제가 균열의 조짐을 보이면서 단절의 바다 황해가 동아시아의 지중해로 부활한다. 지구화의 물결 속에 국민국가의 경계 안팎에서 의미있는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⁵⁾

70년대 이후 일자리를 찾아 인천으로 와서 삶의 터전을 다진 사람들 중에는 호남, 충청도, 강원도 출신의 노동자들이 많다. 그러나 앞으로는 이러한 인구의 급격한 유동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타지에서 인천으로 정착한 사람들에게도 낯설음의 시간은 지나갔다. 7~80년대를 거친 정착 1세대를 지나 2세대들이 학교를 다니고 20대를 지나면서 이곳을 기반으로 직업을 찾고 도시의 주요한 흐름을 형성하고 있는 것이다.

공단도 변하고 있다.

이미 제조업체들이 빠져나간 자리에 새로운 제조업이 아니라 물류창고 또는 몇 개의 업체들이 공장을 나누어 사용하는 방식의 조업형태를 보이는데 하면 공장을 헐고 새로운 용도의 건물이 들어서는 것은 4공단이 두드러진다. 갈산역을 중심으로 갈산4거리 우림라이온스 등 몇 개의 공장형 아파트는 변화된 생산방식을 보여준다. 각각의 공장이 펼쳐진 형태로 담장을 사이에

5) 최원식, 인천학 연구원 8월 월례회 강연 2003. 3. 28 『파국론에 등을 돌리고』

두고 영역이 나누어지는 종전의 공단은 이제 아파트형 공장과 물류창고에 밀려나고 이러한 제조업체는 검단과 서해, 평택 등지에서 다시 찾아볼 수 있다. 대신 아파트형 공장 빌딩 안은 수십, 수백의 업체들이 칸칸이 입주해있고 출퇴근 시간에 사람들의 이동은 눈에 뜨일 뿐 벽 하나를 사이에 두고 단절된다. 이들 간의 소통은 쉽지 않다.

아파트형 공장을 선호하는 직종은 전자제품 조립작업이다. 스마트폰 조립업체는 몇 개월 단위의 작업을 수행하기 위해 공장을 임대하여 제품을 생산한 후 작업이 마무리되면 관리자 한 둘 남겨두고 직원들을 모두 정리하고 회사를 없애버리는 식이다. 노동의 유연화는 이미 다양한 영역에서 전통적인 방식의 지속적인 노동을 통한 생산과정을 대체하고 있다. 물론 아직도 청천농장과 부평농장의 산골짜기에는 70년대 방식의 생산과정이 이루어지고 있다. 다만 그곳에 일하는 사람들은 나이드 한국인과 그 속에 통제받는 외국인이 섞여 있다. 남동과 검단 등지의 제조업체는 외국인 비율이 수치만으로 증가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한국의 노동자들과 다름없이 일하고 같이 밥먹고 떠드는 모습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3. 유적화의 경험 - 공간이 갖는 의미

노동자의 도시 부평이 의미를 갖는 것은 노동자들의 삶이 부평이라는 지역 공간속에서 이루어지면서 공간의 의미가 변화하고 다른 지역에서 찾아볼 수 없는 특성들을 갖추기 시작한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근대화는 근대 이전의 문화를 죽이고 새로운 형태로 대체하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였고 도시화는 아파트와 상가로 둘러싸인 획일화를 기본으로 갖추는 것을 의미한다. 비슷한 획일화 속에서 자신이 안주할 수 있다는 사고가 지배하는 이상, 창조적인 발상이 생겨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아파트가 들어서고 일정한 규모의 건물 앞에 반드시 조형물을 설치하도록 한 이후 아파트와 번듯한 건물 앞에 의미도 알 수 없는 조악한 조형물이 무슨 추상에 술처럼 등장하는 것은 도시 어디에나 비슷하다. 이런 곳에 문화가 숨 쉴 여지는 없다.

차라리 부평과 부평공단 곳곳에 남아있는 흔적을 중심으로 70년대 이후의 공단 형성과정을 살펴볼 수 있도록 만들어내면 그 곳에서 숨 쉬며 일하고 살았던 사람들에게 추억을 남겨줄 수 있지 않을까?

다음에 제시하는 몇몇 사례들은 부평지역의 노동의 흔적과 유적화의 의미를 확인하는 사례라고 생각된다. 박제화한 기념비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시민들의 손으로, 역사적인 의미를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유적으로 바뀌어가는 의미 있는 장소를 확인해 볼 수 있다.

○ 소녀상과 징용노동자 상의 설치과정

소녀상이 일제의 학정을 고발하는 의미로 전국적인 운동 차원에서 진행된 것인데 반해, 징용노동자상 건립은 용산과 인천 등 몇 지역에서 진행되었고 그 작업을 인천의 인사들과 민주노총이 함께 힘을 모았다. 진행 과정에서 일제하 징용노동의 잔학함이 알려졌고 국내에서 징용된 노동자들이 부평의 조병창에서 일한 사실이 재확인되고 그 일대의 공간적 의미가 다시 사람들의 뇌리에 새겨진다. 부평공원 일대는 공원화되기 이전 80년대에는 쪽방촌과 신촌이라 불리던 미군 점령지의 흔적이 가장 심하게 남아있던 동네 중 하나였다. 어쩌면 부평공원의 소녀상과 끌려가는 오라버니를 붙잡고 눈물짓는 누이와 징용노동자는 참담했던 그 동네 부평의 100년을 돌이켜 그곳에서 한 많은 눈물을 흘렸을 60년대 미군부대 양색시들까지 포함하여 사람들에게 부끄러움을 가르친다.



○ 박영근 시비

박영근은 80년대에 박노해와 더불어 노동자의 정서를 풀어낸 대표적인 노동자 시인이다. 구로 등지에서 문학활동을 시작하였으나 본격적으로 시작업을 진행하면서 살았던 부평이 그의 시의 배경이 되었고 부평공단과 그 속의 노동자들의 삶은 그의 시를 이루었다. ‘술아술아 푸르른 술아’를 새긴 시비는 박영근이 살았던 부평구청 인근의 신트리공원 한쪽 축구장 옆길을 걷다보면 어렵지 않게 찾아 볼 수 있다. 그의 부인 성효숙과 친구들이 힘을 모아 시비를 세웠다.



○ 콜트악기의 투쟁과 예술가들의 결합

2010년 전후로 콜트악기 투쟁이 사업장에서 농성으로 지속되면서 문화활동가들이 동참하여 농성장을 바꾸기 시작하였다. 그것은 새로운 시도였고 신선한 자극이었다. 문화예술을 공장에서 실현하겠다는 야심찬 포부를 가진 활동가들은 먼지가 켜켜이 쌓인 작업장에 새로운 호흡을 불어 넣었다.

오랜 농성으로 거미줄 처진 사무실의 집기를 옮기고 그곳에 캔버스를 갖다놓고 작업을 하며 그림을 그렸고, 공장 외벽에 페인트를 칠하여 노동자의 일하는 공간이 새로운 예술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그곳에서 농성자들과 문화예술인, 지역의 활동가들이 모여 정담을 나누기도 하고 토론회를 벌였다. 그리고 그들의 고된 노동을 다시 공장안에서 형상으로 재현하였다. 전국의 뜻있는 예술가들이 공장을 예술공간으로 만들 수 있다는 신선한 발상에 모여 들었고 얼마 후 이들은 공장 전체를 전시관으로 탈바꿈시켰다. 지역의 노동자들이 전시관을 방문하여 약간은 생소하지만 예술작품을 관람하였다.

콜트악기 사업장에서 이루어진 퍼포먼스, 예술가들의 작업, 매주 이루어진 성직자들의 기도 회 등은 공장이라는 공간의 의미를 바꾸어놓았다.

공장부지의 매각이 이루어진 후, 2016년 어느 날 공장을 지키던 노동자들은 공권력에 의하여 밀려났고 곧바로 포크레인과 지게차들이 공장을 쓸어버렸다.



○ 밋골공원의 사례

1990년대를 지나면서 혁명을 부르짖던 활동가들이 썰물 빠지듯이 인천을 떠난 후 부평 산곡동 일대에 해마다 5월이 되면 ‘동네야 놀자’라는 구호가 등장하였다. 구호라기보다는 친근한 말투가 정다웠는데 산곡동 곳곳의 전봇대에 단오날 동네 행사를 한다는 것, 그것은 80년대 식 투쟁의 선언이 아니라 동네에서 먹고 놀고 서로 얼굴보고 살자는 것인데 왜 이런 것이 절실한지 잘 모를 때 마을 운동을 벌여간 사람들이 있었다. 공장의 너머로 사람들의 삶의 공간에서 변화를 모색한다는 것은 답답하고 진부해보였지만 그것은 새로운 시도였다. 탁아소, 어린이집 운동(?)은 가난한 사람들이 어울리는 동네를 기반으로 사람들과 함께 호흡하며 변화를 모색하는 것인데 노동과 투쟁이 아니라 그곳에는 생활과 소통이 있었다. 생경한 구호가 공장 담벼락을 넘지 못할 때 그들은 생활의 공간에서 사람들과 함께 호흡하며 사람들이 오고가는 거리와 식당 그리고 주거지의 환경을 바꾸어냈다. 홍미영 구청장 시절, 공중화장실 용도의 땅에 건물을 덧붙이는 허가를 받아내었고 마침내 2층짜리 밋골공원이라는 동네 사랑방을 만들어냈다. 지금 산곡동 일대의 재개발은 밋골공원을 남겨두고 원적산 아래 거의 전부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밋골공원은 70년대 미군 주둔지의 배후에서 80년대 4공단 노동자의 거주지로 바뀌면서 거쳐 간 수많은 사람들과 그 역사를 담아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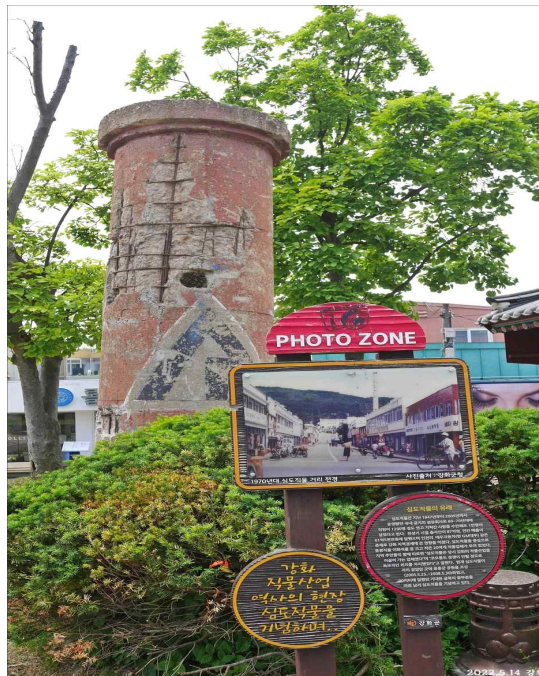
○ 부평공단

- 삼원 섬유 자리 표지석
- 백마교회 표지석, 영아다방 사거리
- 대한 마이크로, 코스모스 전자 공장 터
- 인노협 표지석

강화권 민주로드 안내

김경희 세계문화유산해설사/문화관광해설사

우리나라 현대 노동운동의 시작 심도직물 터.



강화도에는 강화읍을 중심으로 20여개의 크고 작은 직물공장이 존재했는데, 강화 직물공장 중 가장 큰 심도직물에서 1967년 5월14일 전국섬유노조 심도직물 분회가 설립됐다.

이들의 투쟁에 가톨릭노동청년회를 중심으로 가톨릭교회가 연대했다. 개신교에서는 인천도시산업선교회가 활약했으며 이들은 노동자 소모임을 조직하고 노동교육을 실시했다.

강화인조는 오래전부터 배를 타고 북한 및 남한 전역으로 팔린 강화의 대표특산물이었다. 한국전쟁으로 인해 수요가 폭발적으로 많아짐에 따라 가정과 공장에서 대대적으로 생산하게 되었는데 강화인조를 생산한 노동자는 한국이 6.25전쟁으로 인해 고향으로 돌아갈 수 없는 피난민들, 남편을 잃은 젊은 과부들, 더 이상 학업을 이어나갈 수 없었던 가난한 집안의 여성들이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삶이었다. 특히 직물공장에서 근무했던 여성들은 저임금 장시간 노동, 폐질환을 일으키는 공장의 근무환경, 연가·수당·퇴직금의 부재, 산업재해 등 노동자의 기본적인 권리를 인정받지 못하였고, 사회적 질타나 빈곤가정 출신이라는 차별적 시선을 감내해야하는 열악한 상황에 놓여있었음에도 질 좋은 제품을 생산하면서 월급을 받고, 남성들과도 어깨를 나란히 견줄 수 있는 기술자라는 희망이 있는 노동자의 삶을 주체적으로 선택한 진취적이고 적극적인 여성들이었다. 직물을 짜던 여성들은 결혼과 함께 가정으로 복귀하면서 다시 직물을 짜거나 화문석을 생산하는 것으로 노동의 삶을 이어갔다.

현대 노동운동의 시작이라 할 수 있는 심도직물 사건의 무대가 바로 강화도이기 때문이다.

전성기에는 직물공장이 21개나 되었고, 종사자만 5000명이 넘었다고 한다. 이 가운데 지역에

서 국회의원을 지낸 심도직물의 사주 김재소는 정치인이기 전에 1947년 심도직물을 설립하여 커튼과 넥타이 등 직물 수출에 힘쓴 기업인이었다. 심도沁都는 강화의 별칭이다. 심은 ‘스며든다’라는 뜻이며 심도직물은 당시 100만 달러 이상을 수출하여 국내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직물공장이었다. 하지만 심도직물의 노동력 착취는 극심했으며 결국 1967년, 미국인 전 미카엘 신부가 지도하는 가톨릭노동청년회(JOC) 심도직물분회가 설립되었고 노사 간의 대립이 본격화된다. 당시 심도직물 1200여 명의 종업원 중 900여 명이 조합원이었는데 사측은 갖은 수단을 동원해 노조와해 공작을 시도하다가 1968년 1월 초에는 노조 분회장 및 조합원 등 16명의 노동자들을 해고하기에 이른다. 이렇게 심도직물 사건이 시작되었는데, 해고자들은 전부 천주교 신자였다. 해고조치와 동시에 김 사장과 직물협의회 임원들은 전 미카엘 신부를 찾아가 노조 활동에 간섭한다는 항의와 함께 반공법으로 구속시키겠다고 위협했다.

강화도 내 21개 직물회사들의 대표들이 모여, 전 신부의 사상이 의심스러우며 앞으로 JOC회원을 고용하지 않겠다는 등의 내용이 담긴 7개항의 결의문을 작성하고 이를 중앙일간지에 발표했다. 당시 JOC의 총재는 불과 1년 반 전에 마산 교구의 주교가 된 김수환이었다. 그는 즉시 조사단을 구성해 조사에 착수했고 이후 김수환 주교는 강화 성당에 와 미사를 집전하고 십자가를 진 연약한 여공들에게 고개를 숙였다. 구체적인 조사를 마친 김수환 주교는 주교단 회의를 주도해 "교회는 그리스도교적 사회 정의를 가르칠 권리와 의무가 있다. 노동자의 권리를 가르쳐야 한다. 목자로서의 신부는 이러한 정의와 권리를 가르칠 책임이 있다."라는 내용의 '사회정의와 노동자 권익 옹호를 위한 주교단 성명서'를 발표하기에 이르며 사회문제에 대한 천주교 주교단의 첫 성명서였고 교황청은 격려서한을 보냈다.

김재소 의원은 '우리도 금명간 성명서를 내서 진상을 밝히겠다'는 의지를 보였고, 신민당 김은하 국회의원은 '진실 규명을 위해 자료 수집에 착수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노동자들의 집단 해고문제가 한국현대사 최초로 정치문제로 비화된 것이다. 강화직물협의회는 더 이상 버티기 힘들었으며 천주교 측에서도 이 사건을 천주교 박해 행위로 규정하며 공개사과를 계속 요구하였고 결국 강화직물협의회는 2월에 이에 대한 해명서를 제출하며 JOC회원을 고용하지 않겠다는 등의 지난 결의사항을 철폐하기에 이른다. 이렇게 해고된 노동자들이 일부를 제외하고 대부분 복직되었지만 노동자들 특히 어린 여공들의 처우는 별로 달라진 게 없었다. 그때마다 전 신부는 그들을 끌어안았고 특히 노동자들의 인권에 대한 인식이 미약하던 시절에도 전 신부는 그들을 꺼안기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았던 것이다.

이 사건은 향후 1970~80년대 민주화 운동의 시발점이 되기도 했지만, 한국 현대사와 민주화의 거인 김수환이 본격적으로 등장한 첫 사건이기도 했다. 그는 두 달 후 서울대교구 대주교로 임명되었고, 5월 29일, 착좌식을 가졌다. 그리고 다음해 3월 28일, 한국 최초이자 당시 전 세계에서 최연소로 추기경에 서임되었다. 1965년 말 강화성당의 성직자들은 장시간 근로뿐 아니라 직물공장 노동자들 사이에 결핵이 만연한 것 등 심도직물공장 노동자들의 열악한 노동환경에 주목하였다. 그리하여 1967년 분회장에 함덕주, 부녀부장에 윤기순을 뽑아 '섬유노조 심도분회'라는 강화 최초의 노조를 결성하였는데 사용자 측에서는 분회장을 해고하는 등 노조와 해정책을 시도하여 결국 김수환 추기경이 방문하는 등 강화지역에 큰 사건으로 비화되었다. 이렇게 한국 현대사에 결코 작지 않은 사건이었지만 심도직물은 1970년대 일어난 '굴직한 사건'으로 묻혀지고 말았다. 현재 한 때는 국내 최대 규모였던 공장 역시 굴뚝의 일부만 남기고 사라졌다. 최 주교는 축복식 강론에서 "1960년대 심도직물에서 일하던 노동자 1200여 명은 하루 12시간씩 일하는 등 지금은 상상도 못하는 어려움을 겪었다"며 "심도직물 사건은 노동자 편을 들기 힘든 사회적 여건에서 인천교구와 한국교회가 노동자와 연대함으로써 노동사목이 시작되는 계기를 부여했다"고 말했다.

노동사목표지석



심도직물 생산품이 국내외로 인기를 얻으면서 강화의 경제는 활기가 띄었지만 반면 어두운 면도 생겨났다. 노동력이 부족해진 회사는 어린 소녀들과 노동자들에게 과도한 노동을 요구했으며 이에 천주교 강화성당을 중심으로 노동운동이 일어났고, 노동자와 직물회사 간에 ‘심도직물 사건(1965~1968년)’이 벌어졌다. 이 사건은 한국 천주교가 노동 문제에 적극적으로 개입한 첫 사건으로 가톨릭 노동운동사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으며 표지석은 천주교 인천교구 강화성당에 위치하고 있다.

조양방직



강화도는 일제 시대부터 직물산업이 발달하기 시작해 1970년대까지 방직산업이 번성했던 곳이다. 1916년 강화직물조합이 설치됐고, 수공업 형태였던 강화의 직물산업은 강화도에서 최초

로 신식 기계를 도입한 조양방직이 들어서며 근대적 기틀을 갖추기 시작한다.

조양방직은 1933년 일제강점기에 강화도 대지주였던 홍재묵·재용 형제가 12만5천원의 민족 자본으로 설립한 방직공장이다. 초기에는 면방직과 마방직을 했고, 나중에는 주로 여름용 옷감으로 많이 쓰이는 마직물을 염색하는 데 치중했다. 우리나라 최초의 방직공장은 일제강점기인 1917년에 세워진 조선방직이다. 2년 뒤인 1919년에 조선민족자본으로 설립된 것이 경성방직이다. 또한 조양방직이 생기면서 강화도에 전기와 전화 시설도 들어왔다.

이후 평화직물, 심도직물, 이화직물 공장들이 잇달아 들어섰다. 직물공업 활성화로 1950년대 들어서면서 직물공장 수는 급격하게 늘어나 30여개에 이르렀고 6.25 이후 생활필수품 수요가 폭증하면서 직물수요도 급증했고 강화도는 당시 섬유산업의 메카라고 하던 대구와 어깨를 나란히 할 만큼 번성해 1970년대 초반에는 우리나라 최고의 직물생산지로 자리매김 했다.

당시 강화도의 구도심 거리는 하루 두 번 직물공장 교대시간에 맞춰 공장으로 출퇴근하는 여성 근로자들로 거리가 넘쳤다. 국민학교만 졸업하고 어려운 가정 형편에 중학교로 진학하지 못한 여성들이 강화 방직공장에서 2교대로 일하며 가족의 생계와 남자 형제의 학비 등을 책임졌다. 그때 그 어린 여성 근로자들이 섬유에서 실을 뽑고 천을 짜내는 방직에서 염색까지 다 맡아 일하면서 우리 수출의 선도역인 섬유산업의 기틀을 다졌다. 강화도에는 크고 작은 직물공장이 60여 곳 있었고 방직산업 종사자만 4천이 넘었다. 천주교 ‘노동운동’ 첫 사건, 심도직물 노사분규 강화도는 직물산업의 메카가 되면서 한편으로 노사분규가 잦아지면서 가톨릭 노동운동의 시발점이 되기도 했다.

국회의원 김재소가 운영하는 심도직물이 4일 섬유노조 심도직물 분회장을 근무 태만으로 해임하자 노조원 350명이 구성당 구내에 모여 해임 경위를 듣고 있었다. 경찰관 20여명이 이들을 불법 집회로 몰아 주모자 4명을 연행해갔는데 회사 측에서 제시한 4명은 모두 천주교 신자였다. 그리하여 주모자 배후에 전(田) 신부(JOC 강화본당 지도)가 있다는 구실을 잡아 주일 미사를 드리고 있는 전 신부에게 김재소 의원, 경찰서장, 정보계장, 기자 2명이 물려갔다. 그날 오후 4시 심도직물은 ‘천주교 전미카엘 신부의 부당한 간섭으로 공장운영 관리가 마비되었으므로 무기 휴업함’이라는 쪽지를 굳게 닫힌 정문에 붙여놓았다. 강화도에서 가장 잘나가던 방직업체였던 심도직물은 1,200여 종업원 중 4분의 3이 노동조합에 가입해 있었다. 심도직물에서 일하던 소녀들은 노동 관련 기본권은커녕 인권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는 열악한 상황에서 끊임없이 기침을 하면서 일해야 했다.

이런 사정을 알게 된 강화성당의 전 미카엘 신부가 1965년 11월 심도직물 여성 종업원들을 모아 가톨릭노동청년회(JOC)를 만들었고, 1967년 5월 14일에는 300명이 참여하는 심도직물노조가 결성됐다. 회사는 갖은 수단을 동원해 노조 활동을 방해했고, 1968년 1월 노동자 16명을 해고했다. 해고자는 모두 천주교 신자였고 김 사장과 직물협의회 임원들은 전 신부를 찾아가 노조활동에 간섭한다고 항의하며 함께 반공법으로 구속시키겠다고 위협했다.

강화도 내 21개 직물회사들은 전 신부의 사상이 의심스럽다며 가톨릭노동청년회 회원을 고용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결의문을 중앙일간지에 발표했다. 당시 JOC 총재이던 김수환 신부는 주교단 명의로 ‘교회는 노동자의 권리를 가르칠 의무와 책임이 있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심도직물 사주 김재소 공화당 의원은 이에 맞서겠다고 공언하고, 신민당 김은하 의원은 ‘진실규명을 위해 자료 수집에 착수하겠다’는 등 정치권의 문제로 비화했다. 천주교 측은 심도직물 사건을 천주교 박해 행위로 규정하며 공개 사과를 요구했고, 강화직물협의회는 1월 22일 해명서를 제출하며 JOC 회원을 고용하지 않겠다는 결의를 철회하고 해고 노동자 대부분을 복직시켰다. 김 신부는 강화도 심도직물 사건에 개입해 주교단 공동교서를 발표한 것은 한국 교

회의 첫 '사회적 발언'으로 기록돼 있다. 강화도 식물산업은 1970년 중반에 사양길로 접어든다. 1960년대 후반부터 좁은 내수시장에서 과다경쟁 조짐을 보이던 상황에서 1973년 석유파동 이후 많은 공장들이 문을 닫으면서 쇠퇴기에 이르게 된다. 대구를 중심으로 현대식 화학섬유공장이 들어서고 나일론 등 인조직물이 대량생산되면서 강화도 직물공장들은 대부분 문을 닫고 가내수공업만 일부 명맥을 잇고 있다. 강화도 최초의 근대식 방직공장 조양방직은 강화도 식물산업이 쇠락하기 훨씬 전 문을 닫았다. 조양방직은 다른 직물업체보다 단명했는데, 복잡한 자본구조도 문제였지만 사업 초기 발생한 화재가 치명타였다. 설립 10여년 뒤 경영이 어려워져 다른 사람에게 경영권이 넘어가 가까스로 명맥을 이어 오다 1958년 문을 닫았다.

용흥궁



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읍 관청리에 있는 조선 제25대 왕인 철종(재위 1849~1863)이 왕위에 오르기 전에 살던 집으로 철종이 왕위에 오르자 강화유수 정기세가 건물을 새로 짓고 용흥궁이라 이름을 붙였다. 지붕 옆면이 여덟 팔(八)자 모양인 팔작지붕집이고, 지붕을 받치면서 장식을 겸하는 공포가 기둥 위에만 있는 주심포 양식이다. 경내에는 철종이 살았던 옛 집임을 표시하는 비석과 비각이 있다.

조선시대 왕의 장자인 왕세자와 같이 정상적인 법통이 아닌 다른 방법이나 사정으로 인해 임금으로 추대된 사람이, 왕위에 오르기 전에 살던 집을 잠저(潛邸)라고 하였는데 이는 주역에서 유래된 말이다. 용흥궁(龍興宮)은 강화도령으로 불렸던 조선의 25대 왕 철종(哲宗)이 강화도에 은거하며 살았던 집을 후일 그가 왕위에 오르고 난 이후에 보수하여 단장하고 이름을 궁이라고 고쳐부른 이름이다. '강화도령'으로 널리 알려져 있는, 훗날 철종이 될 이원범은 전계대원군 이광의 3남으로 1831년(순조 31년) 한성부 경행방(慶幸坊) 향교동(鄕校洞)[1]에서 태어나 한동안 그곳에서 자랐다. 이원범은 어린 시절에는 그의 형들과 함께 조선 왕실의 몇 안되는 남자 왕족으로 살았다. 이후 아버지가 10살 때 사망한 것 말고는 큰 어려움 없이 지냈지만, 14살 때인 1844년(헌종 10년)에 민진용(閔晉鏞)이 큰형 이명을 왕으로 추대하려는 역모가 발각되면서 이명은 사형당하고 이원범은 연좌제로 작은형 이욱과 같이 교동도로 유배 갔으며, 얼마 못가 강화도로 옮겨졌다. 이후 형과 함께 19살 때까지 5년간 농사를 짓고 나무나 베던 원범은, 강화도에서 왕족이 아닌 평범한 백성으로 생을 마칠 뻔했으나, 1849년(헌종 15년) 헌종이 후사 없이 23살이라는 젊은 나이에 급사했다. 당시 영조의 후손으로서 정통성을 가진 왕족은 이광

의 아들들밖에 없었다. 당시 왕실의 최고 어른이었던 순원왕후 김씨는 이광의 아들인 이원범을 다음 국왕으로 지명했고 철종 임금으로 즉위하게 된다. 그리고 철종이 왕이 된 후 강화도에 있던 그의 집은 왕의 잠저로서 '용이 흥하게 되었다' 하여 '용흥궁(龍興宮)'이라는 이름으로 격상되었다. 원래는 초가집이었으나 철종이 즉위한 후 강화유수가 큰 기와집을 지어 확장했다.

성공회 강화성당



인천광역시 강화군에 있는 성공회 성당으로, 1900년 11월 15일 찰스 존 코프(C. J. Corfe) 주교에 의해 '성 베드로와 바우로 성당'으로 축성되었다. 이 성당은 서양의 바실리카식 교회건축 공간구성을 따르고 있으나 가구 구조는 한식 목구조와 기와지붕으로 되어있는 점이 특징이다. 1890년 제물포를 통해 한국에 들어온 찰스 존 코프(C. J. Corfe) 주교를 비롯한 성공회 신부들이 1893년 강화도 갑곶 나루터에서 선교를 시작하였다.

1897년 조선왕실 해군사관학교(통제영학당)의 영국인 교관으로 부터 3000평 가량의 땅을 매입하여 선교본부를 강화성내로 이전하였다.

건물의 웅장함과 견고함을 고려하여 목재는 수령 백년 이상의 백두산 정송을 조마가 사제가 직접 신의주에서 구하여 뗏목으로 운반하여 왔고, 석재와 기와는 강화도 내에서 구하였다. 도목수는 경복궁 중수에 참여했던 도편수였으며, 중국인 석공과 강화 지역의 교우들이 참여하여 1년 여 만에 완공되었다.

대한성공회의 역사는 1889년 코프가 초대 한국 주교로 영국에서 서품을 받음으로써 시작되는데, 그 당시 우리나라에는 한 사람의 신자도 없었고, 한국인에게 처음 세례를 베푼 것은 주교 축성이 있는 지 7년 뒤인 1896년 6월 13일 강화에서였다. 대한성공회에서는 이러한 인연으로 강화에 제일 먼저 성당을 건립한 것인데, 대한성공회에서는 가장 오래된 역사를 지니게 되었고, 현존하는 한옥 교회건물로서도 가장 오래된 것이다. 순수한 한식 목조건축이면서도 교회기능에 충실한 내부공간을 연출함으로써, 초기 성공회 선교사들의 토착화 의지가 나타나 있을 뿐만 아니라, 한국기독교 역사의 한 단면을 엿볼 수 있는 성당건물이다.

성공회 강화성당은 서쪽에 출입문을 배치하여 서구 형태를 취하면서 전체적으로는 배(船)모

양을 본 떠 뱃머리인 서쪽에는 외삼문 및 내삼문과 동종을 배치하고, 중앙에는 성당을 두었다. 후미에는 사제관을 배치하여 특이한 양식을 보여주며 우리나라 건축사 연구에 귀중한 자료가 되는 유적이다.

조봉암 생가터



조봉암 선생은 강화 출신으로 1919년 강화 3·1독립운동에 적극 참가한 독립운동가이다. 1911년 강화초등학교를 졸업한 죽산은 농업보습학교를 마친 뒤 1913년 생계를 위해 강화군청 사환 임시고원으로 잠시 근무했다. 1919년 3.1 운동이 일어나자 만세 대열에 참여했다가 투옥돼 그해 9월 말까지 혹독한 고초를 겪었다. 출옥 이후 다음 해인 1920년 1월 경성 YMCA 중학부에 입학했으나 5월 말 일어난 대동단 사건으로 또다시 평양경찰서에 연행됐다가 석방된 뒤 일본 유학길에 올랐다. 주오대학(中央大学) 전문부 정경학과 1학년에 다니던 중 박열 등이 조직한 공산주의 계열 단체인 '흑도회'에 참가해 공산주의 사상에 심취했다. 이어 1922년 모스크바로 넘어가 동방노력자공산대학에 입학해 수업하던 중 폐결핵으로 중퇴하고 다시 귀국해 조선공산당을 창당한 뒤 이번에는 상하이로 넘어가 독립운동을 벌이다 일경에게 체포돼 신의주형무소에 7년간 옥고를 치러야 했다.

가석방으로 출소한 뒤 인천에 정착한 그는 미곡상업계 인사들이 마련해준 비강업 조합에 몸담았으나 일제 말기인 1945년 1월 예비구금령으로 일본 헌병에게 체포돼 재차 구금됐다. 1945년 8월 15일 해방과 함께 여운형 선생이 손수 필동 헌병대 감방문을 열어줘 세상에 다시 나온 죽산은 건준 인천지부, 인천 민전 등을 조직했으나, 민전 회장을 사임한 뒤 공산주의와 결별하는 전향 성명을 발표했다.

1948년 인천을구에서 제헌으로 당선돼 헌법 및 정부조직법 기초위원, 무소속 구락부 대표로 활동하다 이승만 대통령의 권유로 초대 농림부장관을 맡아 '혁명 없이 세계 최고의 토지균등성을 확보했다'고 평가받은 '농지개혁법'을 주도했다. 1952년에는 제2대 국회 후반기 부의장으로 활약하다 8월 5일 실시된 2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 70만 표를 획득하면서 이승만의 라이벌로 부상했으며 56년 5월 15일 치러진 3대 대통령 선거에서는 216만 표를 얻었다. 1956년 11월 진보당을 창당한 뒤 58년 1월 간첩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5년 형, 2심에서 사형을 각각 선고받은 뒤 59년 7월 31일 재심이 기각된 지 17시간 만에 사형이 집행되었다.

서울 경기권 민주로드 안내

이형진 민주노총 일반노조 위원장

민족민주열사·희생자묘역 : 마석 모란공원

민주화운동의 긴 여정에는 의로운 죽음들, 민주주의와 통일, 노동해 방을 위해 헌신적으로 살다가
가신 동지들의 삶과 죽음이 있었습니다. 그분들의 삶과 죽음을 온전히 기억하는 것은 우리 역사를
이끌어온 거룩한 뜻과 정신을 기억하는 일입니다.

마석모란공원의 민족민주열사·희생자묘역에 잠들어 계신 동지들은 죽음을 넘어 여전히 우리들의
가슴에 남아 있고, 또 영원히 살아 있을 것입니다. 비록 육신은 잠들었지만, 그 뜻과 혼은 여전히
역사를 이끌어 나가는 동력이며 비전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반이성적이고 야만적 시대에 민중과 함께, 진실과 정의를 믿고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싸
워온 사람들이 있다. 그들은 민족의 자주적 독립과 제국주의에 의해 분단된 조국의 통일, 그리고
민중의 해방을 위해 농촌에서 공장에서, 그리고 교육현장을 비롯한 전국 방방곡곡에서 민중과 함께
투쟁했다. 그들은 이 과정에서 죽거나 다쳤고, 직장에서 쫓겨났으며, 사법사형을 당하고, 실종되어
의문의 죽임을 당하여 실체조차 밝혀지지 못하기도 하였다.

그중에서 1960년 이후 4.19와 5.18 관련 열사를 제외하고 운명하신 열사·희생자 700여 분을 우리
는 ‘민족민주열사’라 부르고 있다. 우리는 반민족, 반민중적인 지배세력에 맞서, 그들이 바라던 민
중이 주인되는 사회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기꺼이 바쳐가며 살아온 아름다운 삶을 기리고 알려
내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이러한 사업들을 추모사업·기념사업·정신계승사업이라는 이름으로 추진
하고 있다.

열사들의 투쟁과 함께 한 민중의 역사

한국근현대사는 일제 식민지와 독재정권의 통치로 인간 존엄성 말살과 민중 억압에 저항하는 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건 노력으로 발전해왔다. 열사의 정신은 외세를 배격하고, 민중세상을 만들고자
했던 1894년 갑오농민항쟁으로부터 비롯되었다. 이러한 자주적, 민중해방 정신은 구한말 의병운동
으로, 일제 강점기의 민족독립운동으로 이어졌다. 해방 이후에는 독재정권과 권위주의 정권에 맞서
4.19혁명과 5.18민중항쟁, 1987년 6월 및 7, 8, 9월 노동자투쟁으로 이어졌다. 이러한 민주주의 발
전과 조국통일, 자주국가를 만드는 과정으로 이어지며 민족민주열사 정신은 오늘에 이르고 있다.

해방 이후 - 1960년 이승만 정권 시기

해방을 맞은 우리 사회의 과제는 식민지 잔재를 청산하고 민족의 자주와 민중이 잘 사는 사회를 건설하는 일이었다. 그러나 이를 해결하지 못한 채 한국전쟁을 맞았다.

한국전쟁 뒤 이승만 정권은 자신의 기반을 더욱 강화하기 시작했다. 일인독재, 장기집권을 위해 이 정권은 전쟁의 폐허 더미 속의 국민들에게 ‘반공주의’를 내세워 전 사회를 이념 대립의 장으로 만들고, 국민의 민주주의, 통일에 대한 열망을 억누르고 독재에 반대하는 정치인을 탄압하는 무기로 사용했다. 정치는 사사오입 개헌 등 폭력정치가 난무하고, 경제는 원조를 통해 소수의 자본가들이 부를 축적하는 동안 민중의 삶은 파탄으로 내몰렸다. 3.15 부정선거를 계기로 일어난 민중의 저항은 4.19 혁명으로 이어졌다.

1961년-1979년 박정희 정권 시기

민주주의를 갈망하던 민중의 저항은 5.16 군사쿠데타로 등장한 박정희 군사독재정권의 힘에 눌렸다. 군사독재정권은 한 손에는 ‘반공’을, 다른 한 손에는 ‘조국근대화’, ‘선성장·후분배’를 앞세운 산업화와 고도성장의 논리 속에 노동자·농민의 일방적 희생을 강요했다. 1970년 전태일 열사의 분신은, ‘고도성장의 논리’가 독점재벌 중심의 성장에 불과한 기만이며, 그 뒤에 감추었던 소외된 노동자들의 삶의 근본문제를 고발하는 기폭제가 되었다.

박정희 군사독재정권은 ‘한국적 민주주의’라는 포장으로 유신체제를 만들어 ‘1인 독재’를 더욱 강화했다. ‘선진조국 창조’를 내세운 중화학공업화의 추진은 정권의 비호 아래 독점재벌을 비약적으로 키웠다. 경제성장을 위해 ‘허리띠를 졸라매던’ 노동자들은 생존을 지키기 위해, 노동자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민주노조를 건설하고, 독재정권과 자본에 대항한 지난한 투쟁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유신체제 등장으로 학생, 지식인, 재야인사들은 반독재민주화투쟁들이 이어졌다. 유신 말기 YH여성노동자들의 투쟁은 유신독재를 흔들었으며, 그 힘은 부마항쟁과 10.26 사건으로 이어지면서 박정희 18년 독재를 무너뜨렸다. 그러나 1980년 봄, 국민들의 군부독재 종식과 민주정치 실현의 외침은 5월 18일 광주에 민중항쟁을 군화발로 짓밟고 등장한 신군부 세력의 5공화국 등장으로 막을 내렸다.

이 시기 열사·희생자들은 박정희 정권의 서슬퍼런 폭압에 목숨을 걸고 항거하며, 사형수로 죽임을 당하기도 하였고, 분신과 투신과 할복 등 모든 것으로 맞섰다.

전태일 (1948년~1970년) 향년 22세. 경북 대구시 남산동 출생

1965년 평화시장 내 삼일사에 견습공으로 취직, 재단사로 일함.

1969년 평화시장 내 재단사 모임인 ‘바보회’와 ‘삼동친목회’ 조직

1970년 11월 13일 ‘근로기준법 화형식’을 거행하면서 분신

동지는 16살 때부터 평화시장 봉제공장의 시다로 노동자의 생활을 시작하였다. 봉제공장의 열두어 살 소녀들에 대한 가혹한 착취에 분노한 동지는 1969년 6월부터 재단사 친구들과 함께 ‘바보회’ 모임을 조직, ‘근로기준법’을 공부였고, 많은 고민을 거듭하다 ‘바보회’를 ‘삼동친목회’로 새롭게 조직하였다. 직접 청계천 노동자들에게 설문조사를 하고, 이를 토대로 ‘평화시장 피복제품상 종업원 근로조건개선 진정서’를 만들어 삼동회원과 노동자 90여 명의 서명을 받아 다시 노동청에 제출하였다. 실질적인 근로조건 개선 없이 업주들의 횡포와 노동부 등 정부당

국의 멸시가 이어지자, 청원과 진정 대신 1970년 10월 20일과 24일 시위를 계획하는 등 적극적인 투쟁을 계획하였지만, 탄압에 의해 실패한다. 마침내 동지는 11월 13일 청계천 노동자들 앞에서 근로기준법 화형의 의미를 담아 오후 1시 30분 경 시장 골목에서 “근로기준법을 지켜라!” “내 죽음을 헛되이 하지 말라”며 분신, 운명하였다.

김경숙 (1958년~1979년) 향년 21세. 전라도 광산군 비야면 출생

1971년 초등학교 6학년 시절 누에고치 공장에서 노동자로 출발

1973년 상경하여 한품섬유, 태진산업, 이천물산 등 근무

1976년 YH무역 입사 후 78년 노동조합 대의원으로 활동

1979년 8월 11일 신민당 점거농성 중 경찰의 살인진압으로 운명

동지는 1971년 광주에서 국민학교를 졸업하고, 1973년 상경하여 노동자 생활을 시작하였으며, 동지가 1976년 입사한 YH무역은 1975년 5월 노동조합이 결성되었다. YH무역은 1백만원의 자본금으로 불과 2년 만에 노동자 400여 명, 1년 순이익 13억원이라는 한국최대의 가발업체로 성장하였다. YH사장 장용호는 회사자금을 해외로 빼돌리고, 1979년 3월 30일 위장폐업을 하였다. 노조의 강고한 투쟁으로 폐업이 저지당하자 8월 2차 폐업을 단행하였다. 이때 동지는 노동조합 후생부 책임담당으로 헌신적으로 조합을 이끌어 나갔으며, YH 노조는 1979년 8월 9일 신민당 당사 점거투쟁을 진행하였다. 당시 이 투쟁은 정당한 폐업철회 투쟁을 벌이는 노동자들을 폭력으로 탄압, 동지를 죽음으로 내몬 군사독재정권의 실체를 적나라하게 드러냈을 뿐 아니라 부마항쟁으로 이어져 마침내 18년에 걸친 독재정권을 무너뜨리는 도화선이 되었다. 동지는 신민당사 농성 3일째 밤, 경찰의 살인진압으로 과정에서 사망하였는데, 타살에 의한 사망이었음이 2008년 3월 진실화해위원회에서 진상규명되었다.

1980년- 1987년 전두환 정권 시기

전두환 신군부정권은 민주노조를 강제해산하는 것은 물론, 정치인들의 정치활동도 통제했다. 재벌들의 과잉중복투자로 중화학공업화 정책이 위기에 처하자, 이를 극복하기 위해 정권은 더 강력한 노동자 통제와 농산물 가격 통제, 그리고 더 많은 외국자본을 들여왔다. 그 결과 노동자·농민의 삶은 다시 벼랑 끝으로 몰렸고, 경제의 자립성은 더 무너져갔다. 독재정권의 억압에도 학생들은 학원민주화투쟁을 벌였고, 노동자들은 민주노조를 다시 세우기 위한 투쟁과 생존권 확보를 위한 노동조건개선투쟁을 벌여나갔다. 1985년부터 불거져 나온 대통령 직선제를 위한 개헌 문제는 독재정권의 성고문사건과 고문치사사건 같은 반인륜적·반여성적 문제와 연결되어 군부독재에 대한 저항을 높여갔다.

이 시기 열사들의 투쟁은 광주항쟁의 진상을 알리기 위하여 분신하였으며, 열사의 죽음은 1987년 6월 항쟁의 불씨가 되었으며, 뒤 이은 7.8.9월 노동자들 대투쟁 등 시민·학생·노동자들이 정치·경제 등 사회 전반의 민주화를 요구하는 전 국민적 민주항쟁의 기폭제가 되었다. 학생운동 말살을 위한 불법구금의 방식인 강제징집으로 군에 끌려가 녹화사업에 의해 수많은 학생 열사들이 의문사를 당하였고, 노동현장에서도 노동기본권 쟁취를 요구하며 분신과 자살로 항거하는 일이 빈번하였으며, 삼청교육대·형제복지원·선감학원 등 참혹한 인권유린으로 인해 수많은 희생자들이 산화하였다.

박종철 (1965년~1987년) 향년 22세. 부산 서구 아미동 출생

1984년 서울대 언어학과 입학, '대학문화연구회' 등 활동

1986년 노학연대 활동중 '청계피복노조 합법성 쟁취대회'에 참가하여 구속, 집행유예로 출소

1987년 1월 13일 치안본부 대공본실에 의해 연행되어, 고문폭행으로 다음날 운명

동지는 서울대 언어학과 학생회장을 맡아 중심으로 학생활동을 전개하다, 1986년 노학연대 투쟁에 참가하는 과정에서 청계피복노조 합법화 요구 시위로 구속되어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출소하였다. 출소 이후에도 학생운동에 적극 참여했던 동지는 1987년 1월 13일 자정 경 '대학문화연구회' 선배이자 '민추위' 지도위원인 수배자를 검거하기 위해 하숙집에서 치안본부 대공본실로 연행되었다. 동지는 14일 오전 물고문, 전기고문을 받았고, 11시 20분 경 병원에 옮겨졌는데 검진시 이미 숨져 있었다. 경찰은 초기 발표에 "책상을 '탁'치니 '억'하고 죽었다"는 터무니없는 얘기를 하며 발뺌을 하였으나, 부검 결과 전기고문과 물고문에 의한 살인인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치안본부는 고문담당자를 축소·은폐해 가족의 허락도 없이 화장을 종용하는 등 증거인멸을 시도했다. 이에 분노한 민중들의 거센 투쟁에 의하여 은폐사실은 만천하에 공개되었으며, 이 사건은 향후 1987년 6월 항쟁의 기폭제가 되었다. 이후 2009년 진실화해위원회 조사에서 정부가 관계기관대책회의를 통해 사건을 은폐·조작한 사실이 밝혀졌다.

1988년-1992년 노태우 정권 시기

국민이 확보한 '직선제 개헌'으로 '선거'를 통해 등장한 노태우 정권은 군부독재정권의 연장이었으며, 보수대연합을 통해 정치적 부담을 줄이려 하였다. 노동자 책임론으로 경제위기론을 유포하며, 성장하는 민주노조운동을 억누르기 위해 노동현장에는 여전히 백골단과 전투경찰의 폭력이 난무하였고, 농민시위, 학생들의 학원민주화와 통일운동도 전투경찰의 폭력으로 진압하였다. 6.29선언의 기만적 통치로 얻은 취약한 정권으로 5공비리특위를 구성하는 등 유화적 정책도 펼쳤으나, 화산처럼 분출되는 민주화의 요구를 억누를 수 없었다. 이 과정에서 수많은 의문의 죽임이 뒤따랐으며, 대학생이 경찰 공권력에 맞아 죽는 사건이 터지고, 이에 항거와 그 정신에 동조하는 '1991년 열사정국'이라 불리워지는 수많은 열사들의 자결이 이어졌다.

박래전 (1963년~1988년) 향년 25세. 경기도 화성 출생

1982년 숭실대 국어국문학과 입학

1987~1988년 민중후보 선거 및 민중정당결성을 위한 학생활동

1988년 인문대학 학생회장 역임

1988년 6월 6일 학생회관 옥상에서 6월 4일 분신하여 운명

동지는 1963년 경기도 화성에서 태어나, 1982년 숭실대학교 국어국문학과에 입학하였다. 대 학생활동은 1980년 민중들의 항쟁을 무참하게 난자한 군사정권의 폭압에 맞서는 학생운동의 선봉의 역할을 하였다. 1987년 대통령선거 당시 민중후보 선거대책위 선전국장, 민중정당 결성을 위한 학생위원회 활동 등을 하였다. 동지는 1988년 당시 숭실대학교 인문대 학생회장으로 활동하면서, 광주학살 진상규명과 분단올림픽 반대, 공동올림픽 쟁취, 6·10 남북학생회담을 쟁취하기 위해 투쟁에 앞장섰다. 학살의 책임자인 군부정권인 노태우 정권이 들어서자, 학살의 원흉인 군부정권이 1988년 6월 4일 동지는 숭실대학교 학생회관 옥상에서 "저의 뒤로 저와 같은 죽음의 뒤따라서는 안됩니다"라며 광주학살의 진상규명과 책임자처벌을 요구하는 절규로 우리 모두의 투쟁을 촉구하며 "광주는 살아있다", "청년학도여 역사가 부른다, 군사파쇼 타도

하자”라고 외친 후 분신하여, 6월 6일 운명하였다.

문송면 (1973년~1988년) 향년 15세. 충남 서산군 원북면 출생

1987년 야간공고 진학을 위해 영등포 협성계공(주)에 입사

1988년 3월 14일 수은중독 진단 후 노동부에 산재요양신청서 제출

1988년 7월 2일 사측과 노동부의 방해로 뒤늦게 산재요양 중 운명

1987년 12월 영등포 소재 협성계공에 입사한 동지는 불과 2개월 만에 수은중독증상을 보여 6개월의 투병 끝에 사망하였다. 고향 충남 서산에서 상경한 동지는 야간고등학교를 갈 수 있다는 희망을 안고 이 회사에 들어와 하루에 11시간씩 압력계 커버의 신나세척, 페인트칠, 온도계의 수은주입 작업을 했다. 이러한 작업과정에서 수은이 새어나와 작업장의 공기가 수은증기로 온통 뿌옇고 바닥에도 액체가 된 수은이 널려있는 지경이었다. 그런데도 노동부는 형식적인 개선명령만 내려놓고 어떠한 실질적인 조치도 취하지 않아 치료받지 못한 상황에서 병이 악화되었고, 결국 뒤늦게 서울대병원에서 수은 및 유기용제 중독 진단을 받았다. 그러나 4월 7일 노동부 서울 남부지방사무소에 낸 산재요양신청서는 사측과 노동부의 방해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 일이 신문을 통해 알려지면서 6월말에야 요양승인이 나왔으나 산재지정병원으로 옮긴지 이틀 만에 동지는 운명했다. 동지의 죽음은 대한민국 사회에서 원진레이온을 비롯한 전반적인 직업병 문제가 쟁점화되는 계기가 되었다.

조영래 (1947년~1990년) 향년 43세. 대구 출생

1971년 서울대생 내란음모사건으로 구속, 1974년 민청학련사건으로 수배

1983년 변호사 개업, 전태일 평전 집필

1986년 부천서 성고문 사건 등 변론

1990년 12월 12일 폐암으로 입원 치료 중 운명

동지는 서울대 재학 중 한일회담 반대, 삼성재벌 밀수 규탄, 6·7부정선거 규탄, 삼선개헌 반대, 교련반대, 공명선거쟁취 등의 학생운동을 주도했으며, 내란음모사건으로 구속된 후 6년 가까이 피신생활을 하던 중 민주화운동에 주력했다. 특히 3년 여에 걸친 각고 끝에 전태일 평전 ‘어느 노동자의 삶과 죽음’을 집필하는가 하면,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망원동 수재사건, 대우어패럴사건, 이경숙 사건 등을 변론하였고, 변호사협회 인권보고서를 집필하기도 하였다. 또한 보도지침사건, 박길재 사건을 담당했으며, 노동, 빈민, 공해, 학생운동 관련사건 등 인권변호에 전력하던 동지는 ‘민주화를 위한 변호사 모임’을 만들고 활동하는 과정에서 지병인 폐암으로 수많은 사람들의 염원을 뒤로 한 채 운명했다.

광주항쟁 관련 열사

○ 1980년 광주 학살에 항의하는 '동포에게 드리는 글'을 남기고 종로5가 기독교회관 6층에서 투신 사망한 스물한 살, 서강대생 김의기.

○ 1980년 서울 이화여대 앞 네거리에서 "유신잔당 물러가라!"고 외치며 분신 사망한 스물두

살, 노동자 김종태.

○ 1981년 학내에서 시위 도중에 도서관 6층에서 "전두환 물러가라!"는 구호를 세 번 외치고 투신 사망한 스물두 살, 서울대생 김태훈.

○ 1982년 광주교도소에서 광주 진상규명을 위해 40일간의 단식으로 옥사한 스물아홉 살, 전남대생 박관현.

○ 1985년 광주 전남 도청 앞에서 "광주시민이여! 침묵에서 깨어나라!"고 외치며 분신 사망한 스물다섯 살, 노동자 홍기일.

○ 1985년 "광주학살 책임지고 전두환은 물러가라!"고 외치며 분신 사망한 스물일곱 살, 경원대생 송광영.

○ 1986년 "전두환 및 5.18 쿠데타 주동자는 물러가라"는 주장을 하고 목포역에서 분신 사망한 스물두 살, 사회운동가 강상철.

○ 1987년 "광주사태 책임자 처벌"을 외치며 분신 사망한 스물다섯 살, 노동자 표정두.

○ 1987년 "군부독재 끝장내고 민주정부 수립하자!" 면서 42일간 학내에서 1인 시위를 하다가 분신 사망한 스무 살, 목포대생 박태영.

○ 1988년 "광주학살 진상규명"을 외치며 명동성당 교육관 4층에서 투신 사망한 스물네 살, 서울대생 조성만.

○ 1988년 "광주항쟁 진상규명"을 외치며 학교 교정에서 분신 사망한 스무 살, 단국대생 최덕수.

○ 1988년 "광주는 살아있다!"고 외치며 송실대 학생회관 옥상에서 분신 사망한 스물다섯 살, 송실대생 박래전.

<인천지역 열사>

송철순 (1963년~1988년) 향년 25세. 강원도 화천 출생

1987년 세창물산 입사, 노동운동을 시작

1988년 노조 창립과 함께 사무장 활동

1988년 7월 17일 '파업기금마련 연대집회' 준비 중 7월 15일 추락하여 운명

세창물산에서는 1988년 6월 28일부터 임금인상과 어용 노사협의회 타도를 위한 싸움을 시작하였다. 회사 측이 휴업조치를 단행하자, 노조 사무장이던 동지는 열악한 근로조건 개선과 파업기금 마련을 위한 연대집회를 준비하였다. 허술하기 짝이 없는 슬레이트 지붕 위에 현수막을 설치하기 위하여 작업을 하다가, 지붕이 내려앉으면서 공장바닥으로 떨어졌다. 그 후, 동지는 동료 노동자들과 이웃 노조원들의 안타까움과 분노 속에 결국 7월 17일, 25세의 생을 마감했다. 다음 날 세창물산 건물 벽에는 동지가 걸어놓은 '사장 놈이 배짱이면 노동자는 깡다'

귀다'라는 현수막이 비에 젖으며 나부끼고, '노동자의 서러움, 투쟁으로 끝내자'라는 내용의 현수막이 채 걸리지 못한 채 지붕에 남아 있었다.

김종하 (1961년~1989년) 향년 28세

1985년 인천 경동산업 입사

1989년 경동산업 임금인상 대책위원, 친목회 '디딤돌' 활동

1989년 9월 15일 부당징계에 맞서 투쟁하다가, 9월 4일 분신, 운명

동지는 1985년에 인천 서구 경동산업에 입사하여 일하면서 '디딤돌'이라는 노동자 친목 모임 회원으로 활동하였다. 1987년 노동자 대투쟁 국면에서 8월 17일부터 30일까지 2주간에 걸쳐 사측의 노동법을 무시한 해고와 부서 이동, 일방적인 단체협약 체계 관행에 항의하여 완강한 파업투쟁을 전개하였으나, 사측은 경찰을 동원하여 주도적으로 참여했던 8명을 구속하고 500여명을 일방적으로 해고하였다. 1989년 8월 31일부터 부당한 징계철회를 요구하며 농성을 하였지만 사측은 경찰과 함께 살인적인 진압을 진행하였고, 동지는 해고 조무자인 이사와 담판을 지으려했지만 구속시켜버리겠다고 오히려 날뛰는 이사의 작태에 분노하여, "경동의 동료들은 싸워 이깁니다, 노동자는 승리합니다" 외치고 분신, 항거하였다. 한강성심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던 동지는 9월 15일 운명하였다.

석광수 (1961년~1991년) 향년 30세. 강원도 삼척군 출생

1986년 강국택시 퇴사 후 인천 공성교통에 입사

1991년 지도부 연행에 항의, 차량시위에 적극 참가

1991년 6월 24일 지도부 석방을 요구하며 6월 15일 분신, 운명.

동지는 강원도 삼척군에서 태어나, 1977년 세일포장에서 13만원의 임금노동자로 사회생활을 시작하였다. 20살 때 인천 계산동 주차장에 취직하여 어머니를 모시고 자취생활을 시작하였고, 1982년 부평 한시택시인 강국택시에 입사, 3년간 근무하다가 취업을 못하고 있는 친구를 위해 그 자리를 물려주고 강국택시를 퇴사했다. 1986년 3월 공성교통에 입사하여 거의 만근을 할 만큼 성실히 근무생활을 하였고, 계산동 노틀담 수녀원에서 벌이고 있는 장애인 돕기 후원회원으로 없는 살림에 매달 3만원씩 후원회비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1991년 3월 대의원으로 피선되어, 노조 집행부를 도와 모든 조합 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동지는 밤새 복을 치며 노동가를 부른 1991년 6월 15일 사업주의 비열하고, 무책임한 임금협상에 온몸으로 항거하며 분신하여, 가족과 동지들의 안타까운 염원을 뒤로하고 같은 해 6월 24일 운명하였다.

최웅 (1964년~1993년) 향년 29세. 강원도 강릉 출생

1987년 경동산업 입사, 풍물패 활동 및 디딤돌 소모임 활동

1989년 경동산업 해고, 인천지역해고자협의회에서 간사

1990년 인천민중교육연구소, 인천민중연합 활동

1993년 10월 26일 신혼여행 중 사고로 운명

동지는 1983년 서강대학교 물리학과에 입학하여, 민속극연구회 '탈패'의 일원으로 전두환 군 부독재정권에 맞서면서 그의 일생을 운동에 투신했다. 1984년 영등포 노동절 가두투쟁으로 붙잡히는 등 대학시절 내내 적극적인 민주화운동을 전개하였다. 1986년 말 군 입대를 거부하고 역사의 진보에 대한 희망을 노동자계급에서 발견한 동지는 인천으로 내려갔다. 1987년 경동산

업에 입사, 풍물패 활동과 민주파 모임인 '디딤돌'의 열성적인 회원으로 누구보다도 열심히 활동하던 동지는 회사 측의 탄압으로 1989년 봄, 결국 해고되고 말았다. 이후 사측은 디딤돌과 노동조합을 탄압하여, 김종하 강현중 두 명의 동지가 분신하기에 이르렀다. 이후 동지는 1990년 초까지 인천지역해고자협의회 실무자로 근무하며 복직투쟁을 전개했고, 1990년 초 인천민중교육연구소와 1992년 인천민중연합 활동과 병역징집 거부투쟁을 계속했다. 이후 결혼식을 올리며 노동자의 삶을 결의하던 동지는 신혼여행에서 불의의 조난사고를 당하여 운명했다.

이덕인 (1967년~1995년) 향년 28세. 전남 신안군 출생

1995년 6월부터 인천 아암도에서 노점 시작

1995년 11월 노점 철거에 반대 망루 농성전개하다 25일 망루에서 내려온 후 행방불명

1995년 11월 28일 아암도 바다에서 시신으로 발견

동지는 1995년 7월 인천시가 아암도에 군사보호시설 지구 철조망을 제거하자 이 지역에서 전국노점상연합회 동지들과 함께 장애인의 자립기반 마련을 목적으로 노점을 시작하였다. 인천시와 연수구는 아암도에 친수공간을 조성한다는 이유를 들어 용역회사를 고용, 경찰의 비호 아래 1,500여 명을 투입 생존을 위해 열심히 살아가던 수십 명의 노점상들을 11월 24일 오전 7시 한겨울 추위에 내모는 철거를 집행하였다. 노점상들은 철거를 막아낼 수 없다고 보고 10월 경에 건설해 둔 망루에 올라가 고공농성을 전개하였다. 11월 25일 동지는 고립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외부에 소식을 알리고자 망루를 내려왔으나, 행방불명되었다가 3일 뒤인 28일 오전 10시 경 망루 농성장 근처의 아암도 앞바다에서 동료들에 의해 발견되었다. 의문사진 상규명위원회 조사결과 동지의 죽음은 위법한 공권력의 행사에 의해 죽음을 당한 것으로 결론지어졌다.

최명아 (1963년~1998년) 향년 35세. 충북 음성 출생

1989년 글로리아 가구 노동조합결성. 교육선전부장으로 활동

1989년~1995년 인천지역노동조합협의회 교육부장, 조직부장으로 활동

1998년 2월 24일 과로로 인한 뇌출혈로 쓰러져 13일간 뇌사상태로 투병하다 운명

이화여대 졸업 후 노동운동에 뛰어든 동지는 인천의 여러 현장에서 노동자들과 동고동락하며 열악한 노동조건 개선과 노조설립을 위해 활동해왔다. 인천의 글로리아가구에 입사해 노동조합 활동을 주도하였으며, 인천지역노동조합협의회 교육부장과 조직부장으로 활동했고, 민주노총 조직부장으로 헌신적인 활동을 하였다. 1998년 2월 4일에는 부당노동행위 사업장 문제의 해결을 위해 노조대표들과 국민회의 당사에서 농성을 시작하면서 피로가 극심하게 누적되어 그 후유증으로 두통과 가벼운 얼굴마비, 시력장애가 나타났으나, 그 뒤에도 2월 9일 민주노총 임시대의원대회를 준비하고, 2월 10일, 11일에도 정리해고 반대투쟁을 점검하기 위해 바쁘게 뛰어다니다, 증상이 심각하여 11일 진료차 병원에 갔다가 뇌출혈로 쓰러져, 2월 24일 오후 1시 운명했다.

안동근 (1961년~2001년) 향년 40세. 경북 대구 출생

1994년 전국콘크리트믹서트럭협의회 결성, 이후 전국을 순회하며 노동자들의 투쟁을 조직

2000년 전국건설운동노동조합 사무처장

2001년 9월 5일 유진레미콘 투쟁 현장에서, 5월 용역 깡패의 무차별 폭행으로 입원, 치료를 받다가 운명

동지는 1994년 전국콘크리트믹서트럭협회를 결성하고 사무총장을 역임하면서, 7여 년간 전국

을 순회하며 레미콘 노동자들의 권익을 위해 쉼 없는 투쟁과 조직사업을 벌였다. 동지는 건설기계(믹서트럭, 덤프트럭)에서 자동차로의 이관 저지투쟁, 완전개별(실명)로 개별보험 가입허용, 레미콘 운반단가(사용료) 산출 등 셀 수 없이 많은 투쟁들을 벌여 레미콘노동자들의 권익을 향상시켰다. 2000년 9월, 전국건설운송노동조합의 설립을 주도한 동지는 인천지부 사무국장을 역임하고, 10월부터는 인천지역 레미콘노동자들의 노조인정을 위해 투쟁하였으며, 2001년 4월부터 전국레미콘노동자 상경투쟁을 주도하였다. 그러던 중 부천 유진레미콘 투쟁현장에서 회사가 사주한 용역 깡패에게 무차별 폭행을 당하고,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으나 이후 증상악화로 서울대학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다가 끝내 운명하였다.

유순조 (1950년~2002년) 향년 52세

1984년 이천전기 입사
1987년 노동자 대투쟁 관련 투옥, 해고되었다가 복직
1998년 구조조정 반대투쟁 관련 투옥
2002년 3월 8일 암 투병 중 운명

동지는 1950년 가난한 농가의 아들로 태어나 10대에 노동을 시작, 20대에 참담한 노동현실에 눈을 뜨고 많은 노동현장을 전전하다가, 1984년 이천전기에 입사했다. 1987년 노동자 대투쟁에 주도적으로 참여해 투옥되었고, 3차에 걸친 해고를 투쟁으로 무력화시켰다. 그후 1998년 금융위기 때 정리해고를 반대하고 생존권을 지키려다 다시 투옥됐다. 이천전기 해고 이후 인천지역해고자협의회에서 활동하면서 인천지역 해고노동자들의 투쟁에 헌신적으로 활동했던 동지는 자그마한 체구에 푸른 수의 같은 작업복을 입고, 입가엔 늘 귀까지 걸리는 웃음을 짓던 활동가였다. 동지의 말과 행동은 화려했고 분주하지 않았지만 그 환한 미소로 해고투쟁을 같이 하는 동지들에게 늘 커다란 힘을 주었다. 투쟁과 긴장으로 점철된 동지의 삶에 어느새 암이라는 무서운 병마가 찾아들었고, 처절한 투병 끝에 운명했다.

김기욱 (1963년~2002년) 향년 39세

1987년 대우종합기계(전 대우중공업) 입사하여, 노래패 ‘노뚝다리’ 결성
1989년~1995년 노동조합 11대 운영위원, 12대 회계감사, 13대 복지실장
1999년 인천지역 노동문화정책정보센터(준) 운영위원
2002년 4월 2일 간암 발병으로 투병생활을 하다가 운명

동지는 대우종합기계(전 대우중공업)에 입사하여, 1987년 노동자대투쟁을 경험하면서 노동자라는 존재가치를 알게 되었고, 오랜 기간 노동조합 간부로서 열성적인 활동을 했다. 노동문화운동이 노조운동의 일부가 아니라 독립된 운동영역이길 바랬던 인천 노동문화일꾼들의 노력으로 인천노동자 노래패 연대체계는 차츰 독자적인 사업을 창조해 나갔다. 그리고 그 중심에서 동지는 1988년 노래패 ‘노뚝다리’를 결성하여 회장으로 활동하였고, 1996년에는 인천지역 금속노동자 노래패연합 ‘철의노동자’를 결성하여 초대회장을 맡았으며, 2000년 인천지역 노동자 노래패장회의 회장 등 인천지역 노동문화연대체계의 대표로서 활동했다. 이런 노력 속에서 인천의 노동문화운동은 전국적으로 모범이 되기도 했으나, 동지의 업무는 늘 과중돼 있었다. 동지는 2000년 간암 말기라는 판정을 받고 투병하다가, 2002년 4월 2일 운명하였다.

강희철 (1962년~2003년) 향년 41세. 인천 출생

1990년 인천민주노동청년회 조직국장
1999년 민주주의민족통일 인천연합 조직위원
2003년 4월 13일 운명

동지는 1962년에 인천에서 태어나 인천지역에서 청년 노동자들의 의식화와 조직화를 위해 젊음을 다 바쳤다. 1990년 인천민주노동청년회 조직국장을 시작으로, 노동자문화마당 ‘일터’에서 활동하였으며, 1993년도에는 ‘통일을여는민주노동자회’ 조직위원장을 역임하였다. 1995년 한국노동운동협의회 조직강화특위 수도권대표를 비롯하여, 1996년 ‘평화와 참여로 가는 인천연대’ 본부장으로 활동하기도 하였다. 또한 2000년부터는 전국연합 조직위원장, 정치위원장 등으로 활동하면서 평생을 조국의 통일과 자주적 민주정부 수립의 길에 바쳐왔다. 2003년 전국연합 중앙집행위원회 회의 도중 뇌출혈로 쓰러진 동지는, 미국에게 빼앗긴 주권회복과 진보정치 승리를 위한 그 길에서 동지와 함께 해온 수많은 동지들의 눈물 간절한 바람에도 불구하고, 41세의 나이로 우리 곁을 떠나고 말았다.

전응재 (1964년~2007년) 향년 43세

1997년 우창운수 입사, 노조 활동

2002년 조직부장으로 63일 총파업 활동하고, 2005년 9월 부위원장 역임

2007년 1월 23일 노동조합 사무실 앞에서 분신

택시노동자들이 겪는 참혹한 노동조건은 지금까지 수십 명의 분신노동자를 낳았다. 그럼에도 여전히 택시노동자들은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기본급을 받으며, 12시간 맞교대 장시간 노동으로 서민의 지친 몸을 실어 나르는 발이 되고 있다. 또한 렌터카 여객 운송과 파견업체를 동원한 택시영업으로, 택시노동자들의 생존권은 더욱 위협을 받는 실정이다. 동지는 택시노동자 생존권 쟁취를 위해 2002년 조직부장으로 활동하며, 63일 동안 파업을 이끌어 월급제 쟁취, 연월차를 유급화시켜 내었다. 이후 사측은 2005년 ‘택시월급제 사수를 위한 비상모임’ 활동가 3명을 해고하고, 2006년 임금삭감안을 반영시킨 임금협약을 체결하며 탄압하였다. 이에 동지는 “임금삭감은 절대 안된다”고 분노하며, “해고를 막지 못해 미안하다”라는 말을 마지막으로 2007년 1월 23일 분신, 운명하였다.

조영관 (1957년~2007년) 향년 50세. 전남 함평 출생

1984년 서울시립대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일월서각’ 근무

1988년 인천 부평 동미산업 노조위원장을 역임, 인천건설일용노조 활동

2002년 실천문학에 시 부분 신인상 수상하며 등단

2007년 2월 20일 간암 발병으로 투병생활을 하다가 운명

동지는 1976년 서울시립대에 입학해 사회과학 씨클이었던 <청문화>를 통해 활동하며, 변혁적인 사회운동과 문학의 결합을 고민하며, 학생운동에 적극적으로 나섰다. 졸업 이후 사회과학 출판사였던 <일월서각>에서 진보적인 출판문화운동을 고민하고, 구로공단에서의 학습모임 등에 참여하다가, 1986년 인천지역 노동운동에 투신했다. 동미산업(주)에 노조를 세우고 위원장으로 활동하고, 해고 이후 1989년부터는 인천지역 건설일용노조를 세웠고, 그때부터 운명할 때까지 인천, 수원 등지에서 용접공, 제관공 등 일용노동자로 살아왔다. 2000년 <노나메기> 창간호를 통해 노동자시인으로 대외적인 활동을 시작하고, 2002년 <실천문학> 가을호 신인상을 받은 후, 노동문학운동을 하며 노동문학, 민중문학 진영의 통일단결을 위한 사업 구상에도 함께 했다. 2004년 인천, 경기 지역 노동자들로 구성된 노동자생활공동체 <햇살>을 창립하고 주도적으로 활동을 했다. 2006년 간암 발병하여, 투병 끝에 2007년 2월 10일 영면했다.

김미영 (1969년~2007년) 향년 38세. 인천 출생

1988년 주안 삼기전자에 입사. 1992년부터 1993년까지 노조위원장 역임

1994년 서흥산업 입사. 1999년부터 전국여성노조인천지부에서 활동

2007년 3월 26일 저녁 조합 활동 중 돌연사

동지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노동자의 길로 들어선 이래 믿음직한 여성노동자로, 밝고 당찬 성정으로 세상의 차별과 맞서 싸웠다.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되는 비정규직 차별과, 저임금으로 고통받는 여성노동자의 열악한 노동현장을 발로 뛰면서 조직하고, 열성적으로 노동조합 활동을 하였다. 동지는 전국여성노조 인천지부 사무국장으로서 조합원의 근황과 고충처리에도 앞장서는 등 역할을 충실히 하여, 조합원과의 조직을 견고히 유지하며 진정한 노동운동가로 성장하였다. 특히, 학교비정규직의 정규직화 투쟁과, 열악한 청소 분회의 근로조건 개선 교섭투쟁은 뛰어난 선동력과 현장지도력을 발휘하여, 단단한 조직을 만들어내며, 노조를 위해 혼신의 힘을 다 바쳐 살아왔다.

인천민주화운동센터 주소 등